

2011
ANNUALLY 제 27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농협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합니다

전문화된 사업구조개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NH농협

농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워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같이]의 힘을 키워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와 [같이] 상의합니다



유전공학전문가와 [같이] 노력합니다



녹색기술전문가와 [같이] 연구합니다



유통전문가와 [같이] 힘을 모읍니다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가치 NH 농협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 633-2733)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Contents

009 · 권두시 청호동으로 가는 갯배 / 지영희

010 · 권두회호

凡歲歲金雞納有功 / 박종철 · 詠菊 雪谷鄭 誦 / 조중기

012 · 발간사 노광복

속초문화 365

016 · 문화예술로 지역과 감동을 배운다

020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 도모

022 · 지역전통문화를 보전·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진흥사업

023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024 · 시민, 관광객과 함께 문화를 나누다

026 · 지역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학습의 장을 만들다

028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총결산

2011 장릉사진공모전

031 · 금상_김유동

032 · 은상_김용직 · 이은자

034 · 동상_김순영 · 김옥자 · 황금순



cover story

2012 장릉사진공모전 금상 수상작
(29p 관련기사)

특집 1. 2010~2011사회문화예술교육

042 · 두근 두근, 문화마루에서 보낸 2년 / 편집부

050 · 소감문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성찰 / 최종현

지역 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실험 / 김효린

새로운 길을 걷는 행복 / 오성란

나, 우리, 그리고 지역문화 공동체 / 이희진

■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033)632-1241
■ <http://www.sokcho-culture.com> · <http://www.sokcho-history.com> ·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속초문화원 ■ 발행인 노광복 ■ 편집인 김인섭 ■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 발행일 2011.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특집 2. 제2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최우수상 논문

064 · 세종 · 세조실록의 속초포와 산성포의 위치 비정 연구 / 정상철

문화원 포커스

088 · 2011 어르신 문화학교 / 이정무

092 · 향토사 대중화 사업 / 김승아

zoom, 속초문화

094 · 36년 동안 장학사업, 평생의 뜻으로(돌감자 장학회) / 엄경선

문화논단

098 · 속초 영광호 제영시의 서정성 고찰 / 장정룡

회원문단

116 · 서예를 잘 하려면 / 박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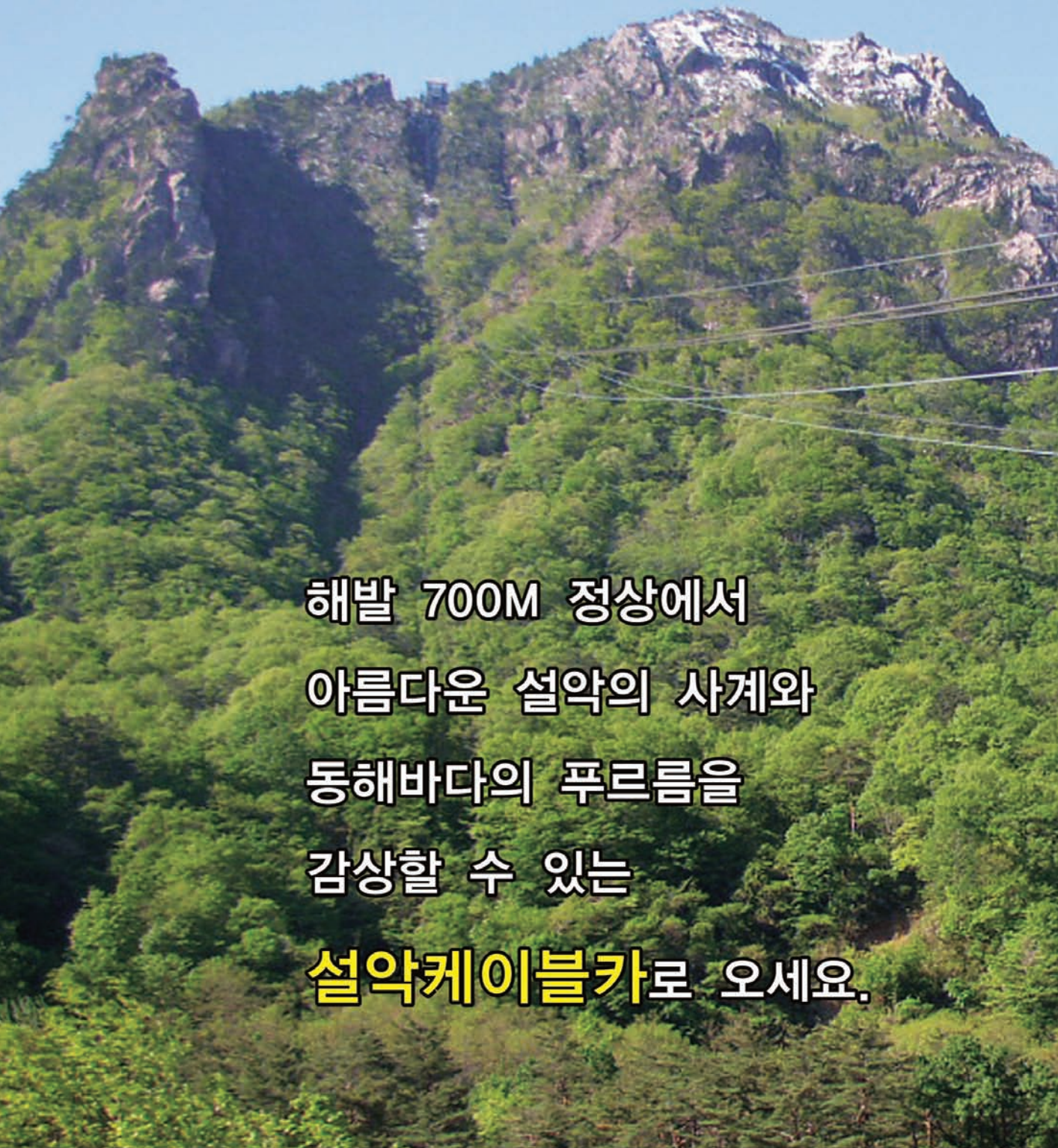
118 · 또 다른 속초 50년을 예비하자 / 이수영

122 ·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131 · 제23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132 ·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해발 700M 정상에서
아름다운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오세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 : 033) 636-4300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

효율과 수익성의 증대

인화 협동의 사원결속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운영 : 문의전화 ☎ 630-6240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투명한 시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Sokcho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환경업무



장묘시설



공영주차장



속초해변시설물



청수정수처리장
(실내체육관)



생활관



시티투어버스



~9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속초문화원 주요 사업

-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제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청호동으로 가는 갯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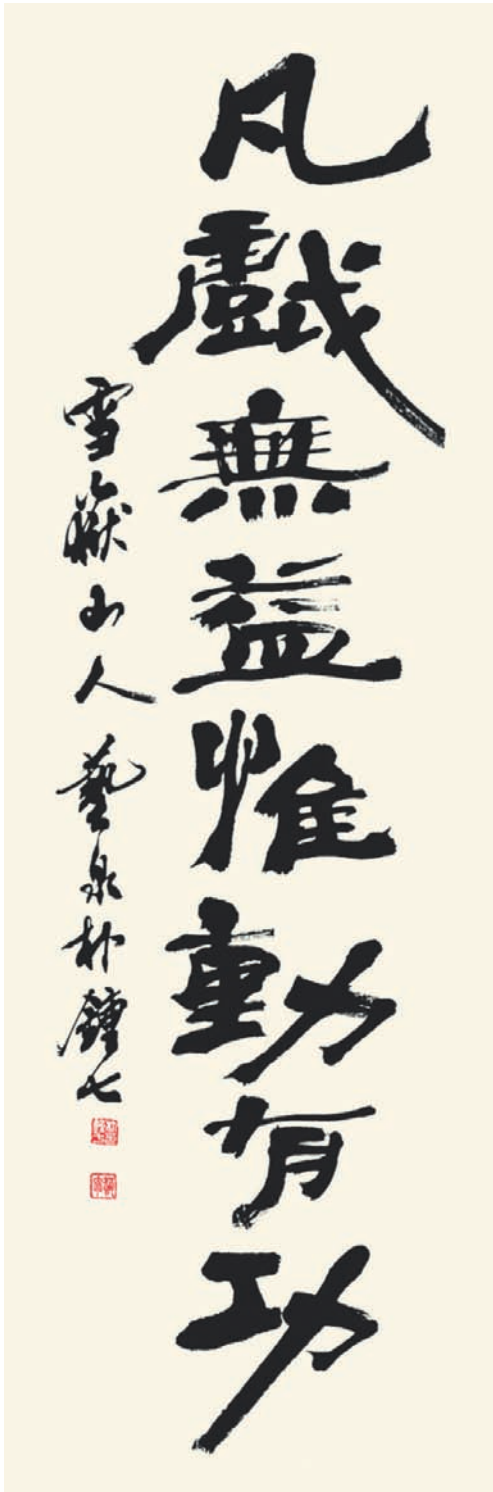
지영희

너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
내게로 오게 함이었다
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쯤
더 아플 것 없는 청호동 바람에 훑어내고
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마다
물결 사이로 솟구치는 유혹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가 왜
먼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
밤마다 서성이는지 알아야겠다
갈고리에 끼운 쇠줄
힘껏 당기어
네 가슴 한가운데를 끌어내는데
내 먼저 가고 있는 건
발 먼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
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
내 가슴 한가운데로
꿈은 쇠줄 하나 내리고 싶다.



지영희

1994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시집 <사람이 두렵습니다>
한국문인협회원, 설악문우회(갈매),
산까지동인
현재 초등학교 교사



凡戲無益惟勤有功

범희무익유근유공

대개 희롱하여 놀기만 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공이 있는 것이다



박종철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 동아국제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4회
- 동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4회
-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초대작가
- GTB방송출연 가운씨주기 현장취회(양양, 정선)
- EBS 한국기행 출연
- 중국 제남시 및 고당현 초청취회, 상동성 국영방송출연
- 일본 섬서미술관 초대전 2회
- 일본 뱃부시 차세대 영화제 초대전
- 제17회 대한민국 서도대전 특선
- 중국 산둥선 요성시 초대전
- 속초서우회 강사
- 속초 복지회관, 금호동사무소 강사
- 속초여성회관 강사역임

詠菊雪谷鄭誦

영국설곡정포

我愛黃金菊

아애황금국

凌霜有光輝

릉상유광휘

獨立晚更好

독립만경호

孰謂孤芳微

숙위고방미

風霜雖凜冽

풍상수름렬

亦不畏其威

역불외기위

足以制頽齡

족이제퇴령

匪獨救我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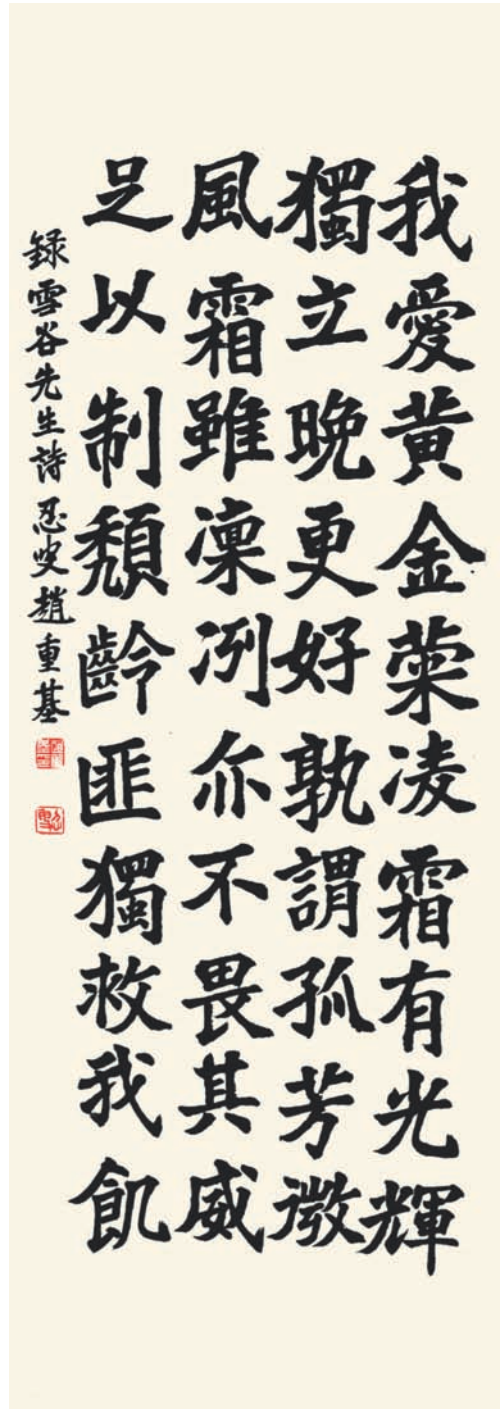
비독구아기

나는 황금빛 국화를 사랑한다
서리를 업신여겨 빛을 내나니
홀로 서있으니 늦은 것이 다시 좋아
외로운 꽃다움이 미약하다 뉘이른고
바람서리 아무리 차고 매우나
그 위엄도 또한 두려울 것 없어라
국화를 먹으면 늙음을 방지하는데 족하니
나의 주림 구제할 뿐 아니니라



조중기

- 2000년 강원서예대전 특선
- 조양동 서예강사



문화로 행복한 속초를 열겠습니다



노 광 복
(속초문화원장)

27번째 속초문화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매년 이맘 때 즈이면 우리 모두 지난 한해의 성과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각종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이제 안정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난 해에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새로운 향유기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지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정충 선장’을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새롭게 만들어 본 교육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향토사대중화 교육도 소중한 시도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지역문화를 스스로 발굴하고 탐구하며 책을 발간하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문화학교는 처음으로 사진반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장소의 제약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시회를 위해 교육생들과 함께 하며 전시를 둘러보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2회 장릉사진공모전은 지난해보다 좋은 사진을 더욱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1939년도 청초호의 신비한 모습부터 우리 속초시민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하며 전승기반을 더욱 훌륭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전승과정을 되돌아보고 발전의 동력을 얻은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속초시민이 우리들의 풍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화콘텐츠는 더욱 열심히 발굴할 수 있도록 묵묵히 문화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20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시기 : 2월
-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 별도)
※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 미달시)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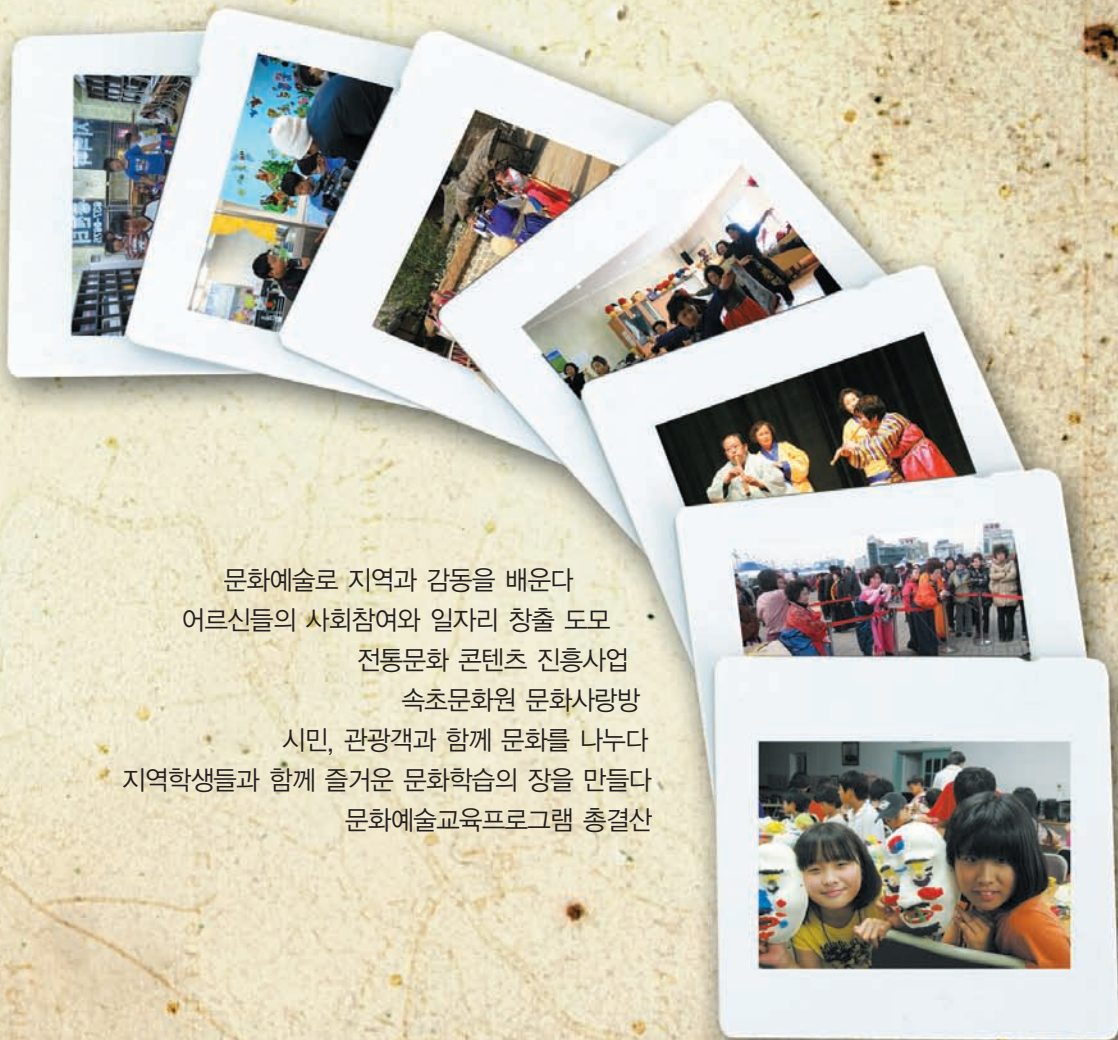
▲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회비 : 연 4만원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 365





문화예술로 지역과 감동을 배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 도모
 전통문화 콘텐츠 진흥사업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시민, 관광객과 함께 문화를 나누다
지역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학습의 장을 만든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총결산

문화예술로 지역과 감동을 배운다

세대를 넘나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청호·온정·청봉 등 4개 초교와 중학 사물놀이 동아리 '뉘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는 북정사자놀이, 도리원 농악 등 지역전통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각 학교별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연중으로 국악심화학습을,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국악캠프, 학교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진행. 설악문화제 기간 중 학교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초청공연 등으로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든 중학생 국악동아리 '뉘누리'





향토문화학교 고전무용반과 서예반의 모습.

향토문화학교는 속초시의 전통있는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문화예술교육강좌로 올해 19기생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한지공예, 서예, 고전무용,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7개 강좌를 진행. 11월 22~23일 향토문화학교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해 1년 동안 배운 기량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기획공모)은 지역성을 가미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보급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는 그림자극동아리, 위스타트 등 6개 향유기관에 4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속초시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유치한학교' 학생들은 안동 탈춤페스티벌 '국제 탈놀이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그림자극 동아리는 지역문화봉사동아리로 자리 잡는 뜻 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트워크프로그램은 총 17차례의 크고 작은 간담회와 워크숍, 문화예술선진지 탐방 등을 통해 지역단체 및 문화활동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수업장면





속초고 2학년생의 향토사대중화 사업.



향토사대중화사업은 지역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향토사를 익히고 지역에 알리는 사업으로, 속초문화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속초의 근현대사 시간여행 '영금정에서 수복탑까지' 라는 제목으로 속초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장천에서 아바이마을까지 교육과 탐방을 통해 근대사를 알아가고, 이를 스토리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초등학교 사회교과 수업에 연계할 수 있는 작은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 도모

어르신을 위한 문화마당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향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 예술교육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 노인일자리사업인 실버문화관광해설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문화학교는 실버들의 문화디자인 '속초 실버프로듀서' 양성이 라는 제목으로 속초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사진교육을 실시하여 두차례 사진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만65세 이상 지역어르신에게 일 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2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아바이마을,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6개 관광거점에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자원을 해설하는 지역관광의 첨병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실버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모습





은빛시선으로 바라 본 속초의 일상 '어르신문화학교'



지역전통문화를 보전·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진흥사업



함경도민 행사에 참가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깃쇠와 곱추



제24회 강원민속축전에 참가한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원은 지역전통문화자원을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며, 지역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속초도문농요, 도리원농악, 북청사자놀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등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향유대상 발굴을 위해 도리원농악을 일반인과 사물놀이 동아리 '뉘누리'에 지도·전수하고 있으며, 북청사자놀음은 통소반을 개설하여 일반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지역문화콘텐츠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설악문화제와 지역 신행민문화콘텐츠인 돈돌날이를 홍보하였고, 북청사자놀음은 제24회 강원민속축전에 참가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현재 속초사자놀음이란 이름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속초문화원 소속 동아리 활동 및 목요문화예술마당



주부풍물단 해울림의 연습장면



설악시낭송회 풀니움이 청소년문화전수교육에서 낭송.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은 문화예술교육 공간이자, 문화원 소속 동아리 연습공간이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사랑방은 문화원 소속 동아리 주부풍물단,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 설악시낭송회 '풀니움'의 연습 장소입니다. 그중 해울림과 풀니움은 문화사랑방에서 연습하며 자체적인 공연과 발표회, 문화원과 연계한 문화봉사공연을 실시하였고 주부풍물단은 춘천에서 실시한 제16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도민들에게 멋진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문화사랑방은 속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술감상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토론하는 목요예술마당의 장소로 활용되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16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참가 모습



시민, 관광객과 함께 문화를 나누다

시민대상 문화향유프로그램



설날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호호콘서트'

속초시민, 관광객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찾는 '호호콘서트', 여름에 만나는 '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는 속초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예교사 조영대와 함께하는 '남미의 역사, 음악'은 위스타트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데스 음악을 통해 남미의 역사와 음악을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문화유적탐사는, 올해 속초문화원가족과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다산정약옹의 고장 남양주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탐방하였습니다.



남양주의 실학박물관에서 열린 문화탐방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명예교사 조영대와 함께 하는 남미 음악

지역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학습의 장을 만든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마당

속초문화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장 추천으로 매년 효행청소년을 시상하고, 여름방학 중에는 초등 저학년 대상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북청 사자놀음을 활용한 연극, 스토리북, 공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방학문화프로그램은 횡성우리별천문대, 마리아기소리골박물관, 한서남 궁역 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과학, 예술, 인문학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회 강원도풍물겨루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타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기량을 겨루도록 했고, 청소년문화전수교육은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경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 '북청사자야 놀자'





청소년방학문화프로그램



청소년문화전수교육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총결산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



속초북청사자놀음과 함께 하는 속초문화한마당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1년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지난 11월 22~23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과 제2전시실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과 함께하는 속초문화한마당' 통합발표회와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유정중문화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임원 동정

농어촌공사 영복지사 강의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지난 4월 13일 농어촌공사 영복지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였다. 이날 강의는 농어촌공사 영복지사가 직원들의 근무 마인드 강화를 위한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노광복 원장의 강의를 통해 속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곽철신 이사, 강원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장 선임

속초문화원 곽철신(한일건업 대표) 이사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7대 속초총동문회장에 선임됐다.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속초분원은 98년 개설됐고 총동문회는 2000년 3월 결성됐으며, 현재 24기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속초 출신 강원대 재학생에게 매년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곽 이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현재 영북지구 충청향우회장도 맡고 있다.

구영모 이사, 속초서포터즈 회장 추대

구영모 이사가 속초서포터즈 3대 회장에 추대됐다. 속초서포터즈는 지역 내 사회단체와 모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30~40대 50여명으로 구성, 시정혁신활동 지원, 시정시책 홍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영모 이사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속초를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적극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정충 문화제

Chapter II

2011
장릉사진공모전

▷▷ 속초 사람 · 속초 이야기

속초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장릉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다. 10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받은 작품은 총 132점이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 의견은 대체로 동일하다. 지난해보다 좋은 사진이 더욱 많이 접수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풍속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은 점은 이번 공모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 사진을 포함하여 속초시민 생활사를 구축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금상_ 김유동 은상_ 김용직 · 이은자 동상_ 김순영 · 김옥자 · 황금순

청초호 나들이

김 유 동

1939년 촬영



1939년 청초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 출품인에 의하면 전 속초시장 김명한씨의 부친이 사진 속에 있고, 여자들은 기생이었다고 한다. 청대산을 배경으로 호반의 돛단배가 정겹다. 청초호는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았고, 소야 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靑湖磨鏡)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속초를 아름답게 품은 청초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충헌탑 앞에서

김용직

1960년대 후반



현재 속초시 도문동에 위치한 충헌탑의 옛모습이다. 충헌탑은 속초시 출신의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5월 동명동 등대 서편 성황당 산등성이에 건립되었다. 이 탑은 1969년 5월에 속초시의 주관으로 영광호 보광사 남동쪽 현재의 체육공원 자리로 이전 되었으며, 다시 1987년 12월 15일 현재의 위치(하도문)로 이전되었다. 사진 속 충헌탑은 현재의 이름과 달리 '忠獻塔'으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책보를 들고

이 은 자

1955년 촬영



1950년대 여학생의 모습이다. 책보를 든 학생들은 당시 남녀공학이었던 속초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아직 교복이 없어서 일상복을 입었지만 자랑스레 책보를 안고 찍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학생들 뒤로 보이는 집의 모습도 이채롭다. 지붕과 벽을 마감한 재료는 미군의 전투식량인 일명 '씨레이션(C-Ration)' 박스로 전쟁 후의 속초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뗏마위에서

김 순 영

1970년 촬영



출품인의 사진에는 70년대 청호동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이 여럿 있다.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청호동 큰 부둣가 부근에서 오징어를 손질하는 모습이나 청호동 동네의 풍경이 그려진 일상적인 모습이다. 청초호에 있는 작은 뗏마 위에서 형제자매들과 찍은 수상작은 70년대의 풍경을 회상하게 하며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아이들 뒤로 보이는 속초 시내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선글라스를 쓰고

김 옥 자

1960년 촬영



선글라스를 쓰고 잔뜩 폼을 잡은 아이들의 무표정이 재미있다. 출판인의 사진은 주로 중앙시장에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다. 이 사진도 중앙시장의 어느 구멍가게에서 선글라스를 쓰고는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아이들 뒤의 아주머니 옷도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설악산 신혼여행

황금순

1960년대 촬영



이제 막 결혼했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는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온 어느 부부의 모습. 사진 속 오토바이는 축의금을 내지 못한 처남이 미안한 마음으로 빌려주었던단다. 당시에는 최신식의 자가용이었던 모양이다.

어느 장례식

김 유 동

1961년 촬영



조양동 선사유적지 부근의 장례식 모습

옛 철독길

김 용 직

1953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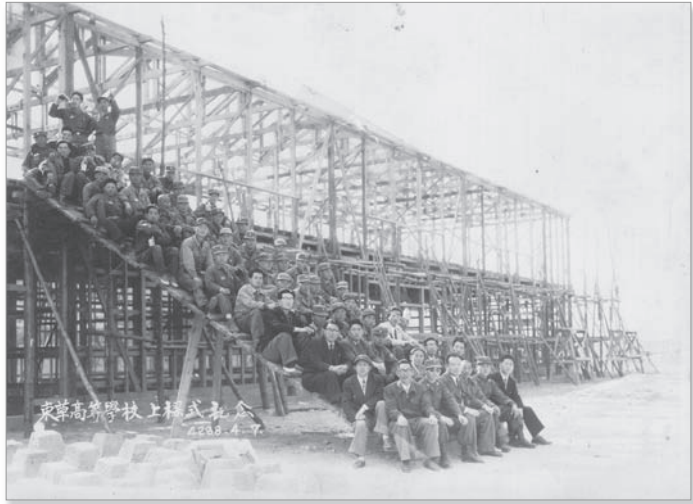


당시 속초 최고의 변화가였던 철독길의 모습

속초고 상량식

김 유 동

1955년 촬영



속초고등학교의 상량식 기념사진. 당시 군인들이 학교를 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속초 시내에서

조 광 녀

1967년 촬영



아리랑 홀 등 속초 시내의 옛 모습

설악산 관광호텔에서

황금순

1964년 촬영



설악산관광호텔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사진

특집

1

2010 ~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2년을 정리하며

속초문화원의 '두근두근 문화마루'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속초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속초문화원을 비롯한 이 사업의 협력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뿌리내림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아동부터 성인까지 두루두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도해 왔다. '속초문화' 특집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활동 결과물과 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두근 두근, 문화마루에서 보낸 2년

편집부

2010년 교육프로그램 _ 우리동네 문화명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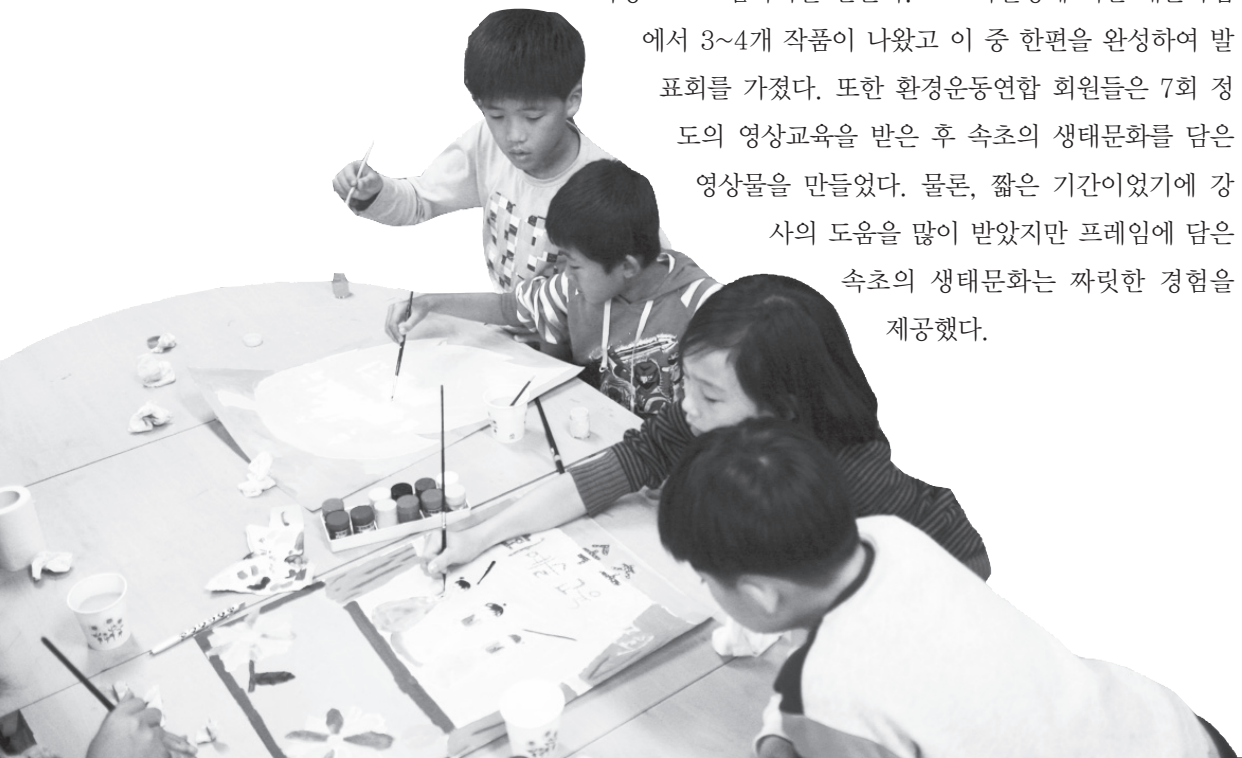
속초문화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지난 2010년 5월. 관내 3개 아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주 1회 예술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번 교육은 놀이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창의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량향상 위주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지역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었다.



청호동 위스타트 아이들은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인 ‘도문농요’를 통해 소리극을 배웠다. 도문농요를 매개로 우리 민요와 전통 소리를 익히고 극을 만들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포스터를 그리고 무대에 사용할 배경막도 직접 그렸다. 몇몇 친구들은 영상교육을 배워서 작품 만드는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발표회 때 함께 감상했다. 그야말로 소리와 국악, 미술, 영상이 어우러지는 통합문화예술교육이었다.

하나로 아동센터와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은 ‘따로 또 같이’ 북청사자놀음을 배웠다. 북청사자놀음에 들어 있는 애원성과 통소, 북 장단을 공통으로 배운 후 각각의 대본을 스토리텔링하여 작품을 만든 것. 하나로 아동센터는 사당거사와 사자춤,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은 애원성과 갈춤을 배운 후 합동 발표회를 가졌다. 지역문화를 같이 배운 아이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를 보는 것도 이 교육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은 지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무심코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문화라는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자극을 만든다. 스토리텔링에 의한 대본작업에서 3~4개 작품이 나왔고 이 중 한편을 완성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7회 정도의 영상교육을 받은 후 속초의 생태문화를 담은 영상물을 만들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기에 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프레임에 담은 속초의 생태문화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했다.



2011년 교육프로그램 _ 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다

2011년도 프로그램은 2010년도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향유기관, 예술강사, 향유자의 조사를 반영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동센터의 경우 새로운 향유기관을 찾기보다 기존의 향유기관에서 특성에 맞는 수업을 했다. 올해는 아동인권선언을 주제로 하여 행복한 흠스쿨은 ‘그림자극’을 만들고, 하나로아동센터는 ‘연극’ 수업을 하였다. 공연형 교육이기에 각 아동센터의 학생들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고 배우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도문농요 소리극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했던 위스타트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지역의 소영웅이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는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희생정신과 어업문화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유정충문화제’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유정충 선장 다큐멘터리와 노래 가사를 짓고 난타를 만들어 공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충이라는 지역의 인물과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이 만나면서 창의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속초시의 방과 후 아카데미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치한학교’를 개설한 것. ‘유치한 학교’란 중학생이 유치원시절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틀에 얽매인 교육보다 창의적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의미였다. 올해는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에 기반한 사자춤을 배우고, 창작희곡을 가지고 탈극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배우는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과정 공유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또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안동탈춤페스티벌에 제출하여 공연을 하였는데, 학생부문 대상을 받아 작품의 완성도도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해에 이어 성인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한 그림자극 동아리는 새로운 회원을 보충하여 동아리형태로 그림자극을 만들었다. 또한 새로운 향유대상으로 청대초등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대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주체적인 학교참여를 위해 어머니 동아리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졌다. 올해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일반시민에게 생활문화 동아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설악산 생태탐방안내소의 자원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자원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질적인 두 단체의 참여는 실패로 끝났고, 학부모 동아리 만들기라는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협조에서 협력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본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문화예술강사 등의 문화기획 인력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중복을 막고, 단계별 향상 프로그램이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초문화원은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다양한 기관 및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확산하고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를 시도했다. 2010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향유기관과 협력기관 실무자 및 예술강사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1년도에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기관이 향유기관으로 새롭게 들어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2010년도 네트워크는 사람과 기관의 만남 만으로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속초라는 공간에서 처음 가져 본 문화예술교육 기관의 네트워크에 모두들 약간의 흥분을 느낄 정도였다. 네트워크 사업은 우선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실무자와 예술강사와의 간담회를 총 5회 실시했다. 5월에는 기관별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본 사업의 이해를 공유했고, 7월은 3개월간 운영 결과 및 개선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10월과 11월은 통합발표회를 위한 준비과정을 공유했다. 본 간담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논의와 능률성을 올리기 위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워크숍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1차 워크숍은 카톨릭대 임학순 교수의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과 네트워크사업에 관한 강의, 이춘아 컨설턴트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어 참가자들 모두 본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워크숍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문화 '사과'와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의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문화예술교육 사례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열정과 고민을 풀어 놓고, 2011년을 준비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과 개인의 상생을 꿈꾸는 네트워크

2011년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과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강사자율연구모임’과 ‘찾아가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사자율연구모임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뉘었다. 하나는 ‘그리움문화학교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0년에 만난 인천의 ‘드라마고’ (반지하 퍼포먼스 대표) 강사와 함께 생태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참여자 모두에게 생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또 다른 워크숍은 지역예술강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로컬프로그램 만들기’를 하였다. 로컬프로그램 만들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창의적체험활동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속초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교육프로그램이었던 북청사자놀이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가치가 녹아있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세명의 강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지난 여름방학 때 속초문화원의 초등 대상 프로그램인 ‘어린이방학프로그램’에서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실무자 간담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와 기관실무자의 협력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공유 및 개선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진행에 관한 다양한 개선점을 이뤄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 점도 특징이다.

찾아가는 워크숍은 속초시박물관과 설악산탐방안내소에 진행하였다. 이들 기관 모두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접근성 때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성찰

최종현
김민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전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일종의 트렌드이다. 한 사회가 '선진'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누림이 얼마나 보편화 되었느냐 하는 것이 잣대가 되는 세상이다.

문화예술은 어느 시대나 다 존재 하였으며 그 시대에 어떤 문화예술이 어떻게 꽃피웠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였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조선 정조 시대에 실학과 함께 문화예술이 들불처럼 번져 조선 후기 새로운 문화예술이 수많은 민중들을 통해 만들어 지거나 변화, 발전, 계승되어 현재에 까지 그 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누구도 이의(異意)를 달지 않는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한 시대의 번영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 또한 번영과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며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을,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을 교육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을 꿈꾸며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복지의 측면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문화예술은 입시와 과도할 정도의 경쟁에 밀려 목표로부터 조금 이탈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안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이제 2년 남짓을 지나오며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뒤늦은 감은 있으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과 후 교육이나 자기주도를 통한 21세기형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안적 성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미처 자리를 완전하게 잡지 못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더 주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를 느껴야 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힘이 다시 국가의 문화 발전으로 이어져 사회전체가 풍요와 발전을 함께 누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선진국'이라는 명

함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속초문화원에서 진행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와 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천하나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찰을 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끌어가고 채워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다.

전 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좀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좋은 점에 대한 평가는 미루고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고민해 볼 것이다.

첫째, 인력풀이 제한적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 즉 강사풀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에는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시행이 불과 2년 밖에는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따르는 점도 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재생산 구조가 확보될 기간이 매우 짧아 강사풀의 순환 구조가 미처 확보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이다. 모든 학습 체계는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 다시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순환 발전해야 하는 데,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을 통해 만족할 만한 강사풀을 만들어 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문화원이 주관하는 예술강사 워크숍이나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시도가 되었지만 이마저도 미처 그 열매를 수확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짧은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뜻 모를 우월감과 배우는 사람들의 수동적인 사고와 실천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예컨대 그림자극 동아리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진행이 되었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 스스로 상상하고 창작하는 법은 강습하여도 배운 것을 능동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하는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질 않았다. 이러하듯 강사와 학습자 모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간의 문제를 앞선다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제한적인 강사풀이 스스로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재생산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냥 단순한 일회성 문화예술교육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교습방법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를 바로세우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강사들은 대체로 자신이 가진 기술 보급에만 힘쓰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예술이 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가치를 획득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고민을 교습방법에 투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자면 교습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지닌 문화예술 전파의 기술을 단순하게 전달하려고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식의 답습 이상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문화는 지켜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변화 발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세상은 그 변화 발전을 토대로 커져이 쌓여 또 다른 문

화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는 세상을 진보케 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대상의 한계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보면 주부, 아동센터 학생, 노인 등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기타의 일반인—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들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기관의 근무시간인 낮 시간에 프로그램을 주로 배치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 시행기관에 사회문화예술교육만을 담당하여 진행할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지나친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도 노동 후 똑같이 여가도 즐기고 쉬기도 해야 할 권리가 있는 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방법은 아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해결해 보려는 고민과 노력은 함께 해보아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녀야 할 역할을 바로세우는 데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인력풀의 문제는 교육자가 교육생을 또 다른 교육자로 거듭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습방법의 문제는 사회문화예술 강사와 향유자, 그리고

타 지역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크와 토론, 학습, 워크숍 등을 통해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냄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내어서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인력 또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좋은 문화 복지 여건이 자칫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몇 년 후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시험적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꼴을 면하려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꾀하고 만들어 가는 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진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재미, 그리고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사회문화예술은 꽃필 것이며 그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 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실험

김효린
예술강사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행복한 학교의 조건은 무엇이지? 왜, 학부모의 참여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요구는 과거나 현재나 있어왔고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부분은 학교중심의 운영정책 지원 선상에 있었고, 참가하는 학부모의 창의적 제안도 학부모회 내부기득권에 거부되어 왔던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지금 다양한 학부모 조직의 학교 참여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시키는 '창의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한부분에서 바라보고 있다.

학교에서 학부모 생태문화동아리의 활동은, 거창할 것 없지만 생태를 문화예술적 활동으로 풀어냄으로써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 활

동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공동으로 체득하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풀어내는 매개자 조직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문화를 매개로 하는 조직이 구성되고, 매개조직의 활동으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주체적 '학부모 동아리' 세우기가 작업의 전부였다. 누군가에 의해 제시되었던 꿈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꿈을 꾸고,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학부모회 동아리의 활동 지속성을 갖기 위한 목표일 수도 있었다.

청대초등학교 학부모 생태문화 동아리.

생태 +문화라는 두 개의 개념이 충돌을 일으켰다.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개념 속에 또 다른 개념이 '끼워들기' 하는 순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려했던 '생태문화'라는 낯선 개념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만나게 되었다. '생태' 개념의 혼란은 그동안 지역의 '환경' 개념이 '자연생태' 개념을 지배해 왔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태적 감수성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도 '환경' 개념 바탕의 감수성이 논의가 되다보니 '자연생태'를 바라보는 의식이 사시화(化) 되어가는 현상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은 하나의 조건임도 불구하고 말이다.

'문화'라는 단어가 내포한 기호관념도 혼란스러움을 가중하였다. 일상에서 듣던 말이었음에도, 문화의 중심에서 용기는 낮은 두려움을 만들어 냈다.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문화의 형태로 동아리 안에서 공유되어지고 합의되고 구체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아리가 가지고 가야할 주체성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주체성이 약화되다보니 상호의존성이 바탕이 된 활동은 갈등의 단초를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 곧 '문화'의 시작임을 알아채는 것이 '문화'임을 상기해 보는 시간이었다.

동아리 활동 참여의식 바탕에는 자원봉사의 특징과 지향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호혜성의 기본 원칙과 자유의지라는 지향성이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을 만들어 낸 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유의지(free will)'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 조정된 참여동기는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에 브레이크 현상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동아리 활동은 호혜성의 원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일반적 호혜성, 균형적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을 결정짓는 동아리 조직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학부모 동아리에 의한 학교 생태문화교육의 정착은 동아리 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함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생태문화교육을 체험하기 위한 동아리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 생태교육을 진행시킬 매개자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의지에 의해 구동된 의식체계는 동아리 활동참여도와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사람에게 / 그림자극 동아리

"나는 지금, 어두운 공간에서 너를 보고 있다. 하얀 공간에서 너의 움직임은 언어가 된다. 방정스러운 움직임은 나의 의식이 되고, 느린 몸짓은 감정이 된다. 움직임이 너에게 전달되기 까지 나는 너에게 물음을 한다. 그림자는 슬프다. 그림자는 행복하다. 그림자 밑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빛은 그것마저 감추라고 한다.

나를 움직인 것은 너의 의식. 너의 생각은 나의 몸짓. 떨리는 너의 손짓은 움직임의 언어.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의 '짓'이 나의 의식과 생각을,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 낸다."

그림자극 동아리. 먼 길을 걸어 온 것 같은 피곤함이 함께 한다. 결론부

터 이야기 하자면 그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이 평온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기대치가 서로 다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감정의 외면들이 충돌하고, 잡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림자극 동아리가 해체될 상황에서도 '사람'이 존재하였기에 멈출 수 없었다고 본다.

문화동아리가 만들어짐에 있어 그림자극 동아리 회원들에게 강조하였던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가?,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즐거운가?'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마디. '동아리 조직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모임이 우선되어야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동아리 구성원이 많고 적음이 동아리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을 세우는 작업(사람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의 시작이고, 한 사람의 움직임이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그림자극 동아리 회장인 탁려옥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만만치 않을 선택의 순간, 책임감, 약해지려는 의지의 시간을, 고민의 시간을 잘 헤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림자극 동아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라보기'라 할 수 있다. 지역을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고, 자신 내면과 외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보이고 지혜가 생긴다. 지금 새롭게 구성된 그림자 동아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과 지혜를 바라보고 공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의 문화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정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길을 걷는 행복

예술강사
오성란

“모래성”
“인어 공주”
“나 잡아봐라”
“오징어”

기대반 설렘반으로 시작한 수업 첫날, 아이들에게 ‘바다’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발표해 보게 했다. 아이들은 마구 들떠서 자신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에겐 아름답게만 그려지는 그런 ‘바다’에서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배와 함께 침몰한 유정총 선장의 의로운 삶이야기를 들려주니 아이들은 어느새 조용해졌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유정총문화제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활동1. 스토리텔링

아이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유정총 선장의 삶을 바탕으로 동화 쓰기’, ‘삼행시 짓기’, ‘유정총 선장 동상 찾아가기’, ‘가족 인터뷰하기’, ‘노래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을 하고 싶어 했다. 토론 과정을 거쳐 이번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유정총 선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는데 목표를 두고 ‘편지글쓰기’, ‘캐릭터그리기’, ‘6컷 만화 그리기’ 등을 하였다. 스토리텔링 마무리로는 모둠 활동으로 ‘노래 패러디하기’를 실시하였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노랫소리로 교실은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을 빛낸 100 명의 위인들’ 곡에 노랫말을 지은 모둠의 패러디도 좋았지만, ‘참 좋은 말’ 곡에 노랫말을 지은 ‘희생과 배려라는 단어’를 이번 프로그램의 노래로 선정하였다. 선정하기까지는 서로 경쟁하던 아이들이, 선정 후에는 서로 칭찬하며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희생과 배려라는 단어

유혜진, 이소정 글

희생은 보석보다 더 값진 것
유정총 선장님을 보면 생각나는 말
배려라는 이 한 단어 맘에 새겨져
희생과 배려 합쳐져 용기 내셨죠
602 하나호 602 하나호 침몰 중
선원들 살리려고 끝까지 무전하셨죠
위험을 무릅쓴 선장님 값진 희생
영원히 기억할게요
희생은 보석보다 더 값진 것
유정총 선장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선장님 존경해요

활동2. 다큐멘터리 만들기

현장 촬영 나가기 전, 역할도 정하고, 영상 장비 다루는 법도 익히고, 사전에 인터뷰할 내용도 선정해서 연습하였다. 드디어 처음으로 현장 인터뷰하던 날, 마이크 앞에 선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인터뷰 내용도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랐던 초심과 달리 어느새 잘하기만을 바라는 조금함이 앞섰던 나는 아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현장에서 수정하기에 바빴다. 문득 괜한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지시하는 내 모습을 얼른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처음 배역 정할 때 힘든 역할은 피하려던 모습과는 달리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정충 선장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호 크기와 비슷한 선박에 오른 날엔, 무전기 앞에 앉아서 유정충 선장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선박 촬영을 마친 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촬영 도구 젖을세라 아이들은 서로 촬영 도구를 챙겼다. 비록 옷은 다 젖었지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때론 여러 명이 함께 지각하기도해서 기운 빠지게 한 날들도 있었지만 촬영 횟수가 거듭되면서 아이들의 자연스런 표정이 담기게 되고 촬영 현장에 가는 발걸음은 더없는 기쁨으로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체험에 대한 설렘이 아이들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활동3. 난타 만들기

‘따르르르 르따르르 르르따르 르르르따’
자동차 타이어로 장단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지칠 만도 한데 피곤한 기색 없이 열심히 따라하였다. 자기 소리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 귀 기울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이 미처 박자를 맞추지 못할 땐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똑바로 해’ 라고 말하기에 앞서 ‘내가 하는 것 한 번 볼래’ 하며 다시 천천히 소리 내어 두드리며, 조금 늦더라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타이어 연습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이번에는 플라스틱 물통, 젓갈통, 청소도구 등 선원들의 실제 생활 도구를 이용해 난타 연습을 하였다. 별달거리장단, 휘모리장단 등 평소 연습에는 능숙했으나 생활도구로 연습할 때는 무대에 선다는 긴장감 때문일까 몸 전체가 굳어 어색하기만 하였다. 되풀이 연습으로 몸으로 익힌 아이들은 이젠 하나호 침몰 당시 급박함을 마음에 담아 몸으로 표현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다.

활동4. 배경막 만들기

프로그램 마지막 활동으로는 아이들이 발표하는 무대 뒤에 올려질 배경막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토론 결과 유정충 선장과 같은 의로운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정하였다. 물과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그리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물이 얽질러지고 물감이 섞여 이수라장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의시켰다. 유정충 선장 동상을 먼저 스케치하고, 그 주변에 어깨동무한 친구들, 나비나 장미 같은 자연물 등 아이들은 각자 생각하는 행복한 모습들을

스케치하고 채색하였다. 자기 그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다른 친구 그림에 방해가 될 때는 조금씩 양보하는 여유로움을 보이고, 실수한 그림에는 다른 색으로 덧칠하면서 다양한 느낌을 갖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도화지가 아닌 천에 그림을 그리며, 도화지에 그릴 때와는 다른 질감을 맛보고, 풀빛이 얼마나 다른 색으로 입혀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창의성을 키우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해서 더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작업이었다. 넓은 천위에 자기가 그린 소재를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였다. 배경막 만들기 작업은 바닥 닦기, 붓 씻어서 정리하기 등 협동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먼저 그랬다고 그냥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 정리하는 성숙함을 보아 흐뭇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감’의 의미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너머로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배우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은 또래들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함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힘들었던 과정을 스스로 해냈다는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고 연주도 하는 즐거움이 가

득한 자리, 다시 한 번 희망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발표회를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루어낸 바로 이런 것들은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문득 지나온 시간들에 ‘아이들이 많이 사랑했었나?’, ‘아이들은 행복했었나?’ 등의 이런 저런 질문들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본다. 함께한 선생님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일, 처음 혹은 중간쯤에라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학부모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한 일, 몸으로 안아 주어야 하는 아이도 있었고 마음으로 안아 주어야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수업 진행에 바빠 외면했던 일 등 조금은 아쉬운 일들이 떠오른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때도 있었고, 때론 미숙함에 쑥스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또 다시 나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들이었나?”

이 프로그램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각박하기만한 현실사회에서 유정충 선장의 희생정신과 배려하는 마음을 새기고 그 정신을 추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장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의 접목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수많은 고민과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는 가운데 겪는 시행착오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602하나호, 602하나호 침몰중. 선원들 살리려고 끝까지 무전하셨죠.’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유정총선장의 송고한 희생정신은 아이들의 생활 중에 실천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이 되어 감을 느낀다. 이제 아이들에게 아름답게만 그려졌던 바다에는 유정총선장의 의로움도 더해질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 길은, 오늘의 작은 노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될 이 길은,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바탕이 될 이 길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가는 길임에 틀림없음을 믿는다.

오늘도 행복을 덤으로 간직하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다.

서로를 격려하며...

나, 우리, 그리고 지역문화공동체

지역문화공동체 활동사례 탐방을 다녀와서

이희진
자원활동가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소통의 방법은 다양하다. 언어가 될 수도 있으며 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를 이어나가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큰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은 어색하고 어려운 단어가 되어 버렸다. 단절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와 '지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문화원의 시도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끔 한 일이었다. 나 또한 지역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늘 고민하고 있었기에 문화원에서 주체한 '인천지역 문화예술공동체탐방'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다.

'공존을 위한 공공문화' 표현집단인 퍼포먼스 반지하.

나를 맞이한 것은 다소 허름하게 느껴지는 일층짜리 커피숍같은 작은 공간. 하지만 곳곳에 걸려 있는 사진은 예술을 지향하는 사진이 아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손때와 세월의 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손으로 만든 것들은 이곳이 '지역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임을 알게 했다. '지역속'에 담겨 있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문화를 만들고 있는 선생님들의 낮은 목소리 속에서 그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누구를 위한 가치인지, 무엇을 위한 가치인지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모습들이 녹아 있었고, 개발과 미개발이 주는 어색함들이 오히려 삶의 연속성을 말해 주는 듯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간문화예술교육단체 꾸물꾸물문화학교.

이 곳의 선생님들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찾게 하고 있었다. 지역을

안다는 것은 역사를 안다는 것과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알아갈수록 자부심이 커지고, 또 책임도 커간다는 것을 주민들은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후 과연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찾은 것인지, 찾았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나만의 시간을 계속 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낯설은 단어인 '지역문화공동체'. 지역, 문화, 공동체라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였기에 '지역문화공동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어렵듯하나마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기에 '지역'이란 내가 살고 있는 곳, '문화'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에서 출발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지역문화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건 처음에 꺼낸 말처럼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또 다양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집단을 이루고 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공존, 공감, 공생.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공존'. 그 공존하는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 그리고 이렇게 공존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과의 공감을 통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공생'. 이것들이 어울려져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지역문화공동체'가 아닐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향유하는 사람들, 돈을 쓰는 사람들과 버

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정의 형태, 어른들의 집단과 학생들의 모임 등 등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담아 낼 수 있는 역할을 '지역문화공동체'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교육이든 또 다른 형태든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지역문화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이다. '지역문화공동체'의 가치이다. '지역'이 가치일 수 있고, '문화'가 가치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가 최종 가치일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동 해바라기」라는 소설 속에서 가난한 청동이네 집은 청동이와 해바라기 두 아이 모두를 학교에 보낼 학비가 없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보내는데, 부모님은 친자식이지만 병어리인 청동이보다 양녀인 해바라기를 학교에 보낼 결심을 한다. 학교 가는 것을 꿈꿔오던 청동이기에, 자신을 내세울 법도 하지만, 자기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동생 해바라기 역시 학교에 들어가고 싶을 테지만 오빠를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청동이네 가족들이 서로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챙기고 사랑한다. 나의 존재가 당신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순수하게 본능으로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깊은 공감은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청동이네 가족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랑이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면 상대방도 배가 고플 것이라는 순수하고 선한 공감, 내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만큼 해바라기도 그럴 것이라는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깊은 관계 맺음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우리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를 건설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체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지역문화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집

2

제2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논문

세종·세조실록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_정상철

지난 10월 21일 고성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1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속초시 공무원인 정상철씨가 쓴 '세종·세조실록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지역의 지형 연구, 인근 군사유적 및 역사유적 등의 연구를 통해 산성포가 속초포의 또 다른 지명임을 밝히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의 광범위하면서도 탄탄한 논리구조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이번 논문수상의 가장 큰 의미는 속초에서 처음있는 향토사 논문 수상이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지역 향토사 연구가 한단계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전문을 다시 한번 속초문화지에 실는다.

세종·세조실록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

정상철

- I. 들어가는 말
- II. 세종·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
 1. 속초포(束草浦)
 2. 산성포(山城浦)
 3.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 3-1. 현재지명과 산성포(山城浦)
 - 3-2. 청초호 지형과 산성포(山城浦)
- III. 맺음말
- IV. 참고사진
- V. 참고문헌

1) 40세, 속초시청 근무

I. 들어가는 말

사람의 핏줄이 전승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역사도 전승되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이 살아오던 터전, 즉 지역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지역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 없이 그 지역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명(地名)은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이다.²⁾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지명 등에서 유래한 지명이 많다.³⁾

지명의 어원을 찾고, 과거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명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하지 못한 지명을 따로 둘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도시로 발달한 곳은 예전에는 산이었거나 논, 뽕밭이었던 경우가 많다. 흔히 어른들 말씀처럼 시대가 바뀌다보니 그렇다는 얘기가. 서울의 강남 특히 잠실은 그 옛날 뽕밭이었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전국 최고의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우리 고장의 경우, 속초는 옛날에 양양군 소천면 속초리에 불과했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어업의 발달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터전을 이루고,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도천면 속초리(과거 소천면 속초리)가 도천면과 소천면을 대표하는 도시명(都市名)이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는 커졌으나, 많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 졌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을 포함, 많다면 많은 역사적 유물을 뒤로 하고 역사 문헌자료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통해 역사적 전통성의 발굴 및 보존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지역의 지명 또한 「조선지리지」의 내용 외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마을지명을 해석해 놓은 실정이며,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이라는 것은 그 지명자체가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역사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삼일포대항비에 처음 등장한 ‘양양 덕산’이라는 지명을 통해, 속초 외옹치에 위치한 덕산

2) 김연옥,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198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49편 259p

3) 정장호, 「강원도지명의 유형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제13집, p42

봉수지(德山烽臺)를 통해, '덕산'이라는 지명과 봉수의 역할, 칠량역천(七良役賤)이라 불리는 봉수군들의 삶, 봉수군을 인근지역주민들로 충당하는 제도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혁파된 산성포(山城浦)에 대해 이 산성포가 속초포(束草浦)임을 말하고자 한다

II. 세종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

1. 속초포(束草浦)

'속초'라는 지명이 문헌상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완성)인 것은 지역을 사랑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이다.

다시한번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⁴⁾를 살펴보면

“진(鎭)이 2이니, 삼척(三陟)과 간성(杆城)이다.(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鎭)들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⁵⁾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태조재위기간이 1392~ 1398년이므로 1392년은 즉위 원년이며, 태조6년은 1398년이 된다.

즉 '태조6년 정축에 비로써 진(鎭)들을 두었으나'라는 의미는 1398년 전국에 진(鎭)을 설치하여 해안 방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세조 때 중앙에는 5위(五衛)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 첨절제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 책으로서, 1398년(태조6년)에 전국에 진을 설치하였다

4) ...太祖六年丁丑始置鎭二鎭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 江陵府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在平海東甍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甍三●軍二百單十...

고 하는 그 옛날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나, 지금(당시 왕이 통치하던 시기) 폐하였다(今廢)식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당시(1452 ~ 1454)에도 속초포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산성포(山城浦)

그런데, 우리지역에 관한 지명에 관해 또 다른 기사가 세종실록에 보인다.

세종 15권, 4년(1422년) 1월 25일(계미) 5번째 기사⁶⁾에는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처후는 양양부사를 지냈다고 하나, 세종실록 외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⁷⁾에서는 “1421년(세종 3)에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가 되었으나 그 이듬해(1422년)에는 양양부사(襄陽府使) 때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헌부의 규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5) 수군만호가 지키는 곳. 조선시대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이다. 원래는 몽골(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이었다. 개경(開京)의 순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 마산) · 전라(全羅) · 탐라(耽羅) · 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만호는 거느리는 군대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 다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본래 만호 · 천호(千戶) · 백호(百戶) 등은 그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민호의 수효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였다. 육군에서보다는 수군(水軍)에서 이 관직명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 · 부만호(副萬戶) · 천호 · 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 · 진체제가 진 · 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 · 만호 · 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1484년 을사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삼척포 진 관 안인포, 울진포, 고성포, 월송포),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검사복 · 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대전회통』
- 6)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 군아(郡衙) 안에 간직된 추포(●布) 90필, 건어(乾魚) 1백 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회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아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 있는 건어 합계 1백 50마리, 해곽(海藪) 40속(束)으로 생고치(生藺) 6석(石)을 바꾸어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또 무녀(巫女)의 낚시 11냥(兩)을 거두어 군아 안에 있는 낚시까지 합하여 낚시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境內) 낙산사(洛山寺)의 진수정 염주(眞水精念珠) 21개를 비밀리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공사(供餼)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自由)하였는데도 처후(處厚)는 승복하지 않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범죄가 사죄(赦罪) 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5장 B면【영인본】 2책 472면【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7) 변처후는 1373년(공민왕 22)에 태어나 1437년(세종 19)에 사망한 인물로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장연(長淵)으로 호는 수정(水亭)이요, 구수(龜壽)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박덕생(朴德生)의 딸이다. 1393년(태조 2) 춘장시(春場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으며, 노비소송을 잘못 판결한 탓으로 1414년(태종 14)에 파직되었고, 그 이듬해에 상서사소윤(尙瑞司少尹)으로 다시 파직되었다. 1421년(세종 3)에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가 되었으나 그 이듬해(1422년)에는 양양부사(襄陽府使) 때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헌부의 규탄을 받았으며, 그뒤 훈련관제조를 거쳐 1433년 중추원동지사가 되고, 1436년에는 중추원 부사가 되었다. 아내는 이원계(李元桂)의 딸로 맞았으나 홍로(洪魯)가 버린 아내이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세력에 기대어 벼슬에 나아가 직임을 게을리 한다고 비웃었으나, 글씨도 잘 쓰고 문장에 능하여 당시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고 전한다.

역대 양양부사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읍지의 선생안은 성화22년(1486년)에 부임한 매월당 김시습의 친구인 부사 유자한(柳自漢)⁸⁾부터 나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성포만호를 지냈다는 이양수(李養修)에 대해서는 “감찰(監察) 김부(金扶)를 목 베고, 감찰 황보전(皇甫典)은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주부(注簿) 이양수(李養修)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였다”라는 기록이 태조 14권, 7년(1398년) 7월 11일(갑신) 1번째 기사⁹⁾에 전해진다

태종 2권, 1년(1401년) 10월 26일(신사) 1번째 기사에는 “전 지통주사(知通州事) 이양수(李陽修)는 일찍이 풍저창 부사(豐儲倉副使)가 되어 종이 수십 권을 도둑질하였으니, 원컨대, 죄안(罪案)대로 시행하여 후인(後人)을 경계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세종 7권, 2년(1420년) 3월 20일(무자) 4번째 기사¹⁰⁾에서는 “회양부사 이양수(李養修)는 전에 풍저창 부사로 있으면서 장물죄를 범하여 곤장100대를 맞은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 8권, 2년(1420년) 4월 2일(경자) 3번째 기사¹¹⁾에서는 “임금이 명령하기를, 이양수(李養修)는 종척(宗戚)이나 훈구(勳舊)도 아니지마는, 특별히 대신의 연고로 하여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제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산성포만호를 지낸 이양수는 세종실록에서처럼 이양수(李養修)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태종실록에서부터 나타난 이양수는 이양수(李養脩)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수(修)자와 수(脩)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세종실록에서 두 ‘이양수’에 대한 기록이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8) 府使 柳自漢 文 成化二十二年 丙午 到任 『양양군읍지 읍선생안조』

9)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7월 11일(갑신) 1번째기사

조준을 비방한 김부를 목베다. 요동 공략 문제로 조준 김사형과 남은 정도전 일파 간에 알력이 있다. 황보건이 이 말을 듣고 주부(注簿) 이양수(李養脩)에게 이야기하자 양수가 성균악정(成均樂正) 김분(金汾)에게 말하였다. 김분은 조준의 문인이므로 조준에게 고하니, 조준이 태조에게 아뢰었다. 태조가 노하여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홍서(洪恕)·마천목(馬天牧)·유익지(柳翼之)·최진성(崔進誠) 등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인재를 천거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거한 것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것은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뒤로 보건대, 전 만호(萬戶) 이양수(李養修)는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비할 데 없고 소견 좁은 비부(鄙夫)여서 일찍이 감림(監臨)하다가 스스로 도둑질한 죄를 범하여 표부 과명(標付過名)한 것은 사람이 함께 아는 것인데, 어찌 마땅히 군사를 관할하고 무리를 여거하는 데 합당하겠습니까? ...임금이 모두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617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10) 세종 7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3월 20일(무자)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양수의 관리 자격을 논하다. 회양부사 이양수(李養修)는 전에 풍저창부사로 있으면서 장물죄를 범하여 곤장100대를 맞은 적이 있다.

11) 세종 8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4월 2일(경자) 3번째기사

이양수를 파면시키라 명하다

임금이 명령하기를, “이양수(李養修)는 종척(宗戚)이나 훈구(勳舊)도 아니지마는, 특별히 대신의 연고로 하여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제수하였던 것인데, 대간들이 전에 탄재한 죄가 있다 하여 여러 번 파면하기를 청하고, 좌우 사람들도 역시 불가하다고 말하니, 파면시키고, 지금 이후로는 다시 등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양수는 박은의 처족(妻族)인데, 성품이 간교하고 탐오하며, 아무런 재능도 없으나, 단지 자식이 없어서 은의 아들을 양자하였었다. 은이 전일에 천거하여 대호군(大護軍)을 시키고, 또 천거하여 회양 부사를 시키니 그때의 여론이 모두 잘못이라 했다.

여기서 변처후에 대해 탄핵할 것 논한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은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라는 구절이다. 변처후가 산성포만호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양도호부 관내에 산성포(山城浦)라는 새로운 지명(地名)때문이다.

세조3년(1457년) 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수강(柳守剛)은 강릉부사 재임시절을 되살려 상소하기를¹²⁾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적(敵)에게 응전(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여 강릉부(江陵府) 경내(境內)인 연곡포(連谷浦)를 중심으로 동해안의 여러 포구에 대해 혁폐(革弊)하기를 건의하였으나, 병조(兵曹)에서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변하여 혁파하지 못하였다.

강릉부사를 지냈던 유수강(柳守剛)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즉, 1457년까지는 4월까지의 연곡포를 비롯해, 다음에 언급되는 산성포(山城浦)는 수군기지로서의 역할이 계속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5년 후인 세조 29권, 8년(1462년) 9월 14일(을사) 2번째 기사에서는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회(韓明繪)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蔚珍)과 삼척(三陟)의 양 포(浦)는 도적이 지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수령으로써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事變)이 있으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결국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성포(山城浦)는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462년에

12)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적(敵)에게 응전(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안이 깊고 넓어서 병선을 많이 정박(停泊)시킬 수가 있으며, 또 거리가 10여 리(里) 땅에 있고, 인민(人民)이 조밀(稠密)하게 거주하므로 방어(防禦)가 편이(便易)하도록 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을 파(罷)하고, 평안도구자(平安道口子)의 예(例)에 의거하여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점차로 축조(築造)하도록 하고, 그 연변(沿邊)의 초인(草人)도 또한 철거(撤去)하도록 하고, 그 만호(萬戶)로 하여금 육지에서 방어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兵船)을 혁파(革罷)하고,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고, 초인(草人)을 철거(撤去)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草人)은 적군(敵軍)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撤去)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4월 16일(기유) 3번째 기사』

각각 폐지된 걸로 볼 수 있다.

세조 43권, 13년(1467년) 8월 24일(정사) 7번째 기사³⁾에서 “병조(兵曹)에서 강원·황해도 체찰사(江原黃海道體察使) 한계미(韓繼美)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를 혁파(革罷)하여서, 해문(海門)이 광활(廣闊)하게 통(通)하고 또 수심(水深)도 배를 정박(碇泊)할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 하물며 강릉부(江陵府)가 해변(海邊) 중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조밀(稠密)하니, 청컨대 일찍이 혁파(革罷)한 연곡(連谷)·양양(襄陽) 두 포(浦)의 선군(船軍)과 강(江)의 선척(船隻)을 다시 설치하고, 만호(萬戶)가 수어(戍禦)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여기서 ‘일찍이 혁파한’의 연대는 위의 세조 8년(1462년) 9월 14일 2번째 기사를 볼 수 있듯이 1462년이 되며, 연곡(連谷)·양양(襄陽) 두 포(浦)는 각각 연곡포(連谷浦)와 산성포(山城浦)로 비정할 수 있다.

세조 46권, 14년(1468년) 6월 4일(임진) 3번째 기사⁴⁾에서 “병조(兵曹)에서 강원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삼척(三陟)·고성(高城) 사이에 있어, 해구(海口)가 통활(通闊)하며 병선(兵船)이 정박할 만합니다. 또 강릉은 거주하는 인구가 조밀(稠密)하여 왜구(倭寇)가 있을까 염려되니, 청컨대 일찍이 혁파(革罷)한 연곡포(連谷浦)·양양포(襄陽浦) 두 포의 선척[船艘]과 수부(水夫)를 안인포(安仁浦)에 이속(移屬)하고,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여 방어(防禦)를 굳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즉, 1462년에 폐지되었던 두 포는 수군기지 설치의 목적이 수군만호의 자리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1467년에 다시 원래 위치에 설치되었다가, 10개월만인 1468년 6월에 안인포로 이속되게 된다. 이는 해군기지로서의 물리적 기능이 폐지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군만호처로서의 만호와 병선, 수군이 다른 곳으로 옮겨감으로서 행정상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세종 37권, 9년(1427년) 7월 16일(임인) 5번째 기사⁵⁾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13) 「세조실록」【태백산사고본】【영인본】 8책 114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14) 「세조실록」【태백산사고본】【영인본】 8책 189면【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15) 병선을 평해군(平海郡)의 월송포(越松浦)에 도로 두고 지군사로서 만호를 겸무하게 하였다. 처음에 본포(本浦)에 모래가 쌓여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만호를 혁파하고 병선을 울진(蔚珍)의 수산포(守山浦)와 삼척포(三陟浦)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이때에 와서 고을 백성들이 본군의 읍성(邑城)이 튼튼하지 못하고, 더구나 왜적이 먼저 들이닥치는 땅이므로 방비가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모래를 쳐내어 도로 병선을 정박시켜 뜻하지 않은 변고에 방비하기를 청하였다. 감사가 이를 아뢰니 드디어 그전대로 회복하기를 명하였다.

3.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결국 강원도의 해안가 어느 지방에 있던 수군정박기지인 산성포(山城浦)는 1468년 6월에 없어진 셈이 된다.

그렇다면 ‘산성포(山城浦)는 어느 지역에 있던 포구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화원형 백과사전에서는 경내(境內)의 의미를 ‘일정한 지역이나 구역의 안’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선 세종 15권, 4년(1422년) 1월 25일(계미) 5번째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양부사 변처후는 양양도호부 관할지역인 산성포 만호 이양수에게 소금을 청하였다고 하니, 산성포는 양양도호부 관할내의 지역임은 분명하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의 현존하는 역사상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군사적 용도로의 포(浦)는 2곳이 존재한다.

하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지금의 청초호에 있던 속초포(東草浦)요, 다른 하나는 양양 조산리의 대포(大浦)이다.

대포(大浦)¹⁶⁾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듯이 강릉 연곡포에서 다시 안인포로 옮겼다가 성종22년(1490년)에 다시 양양 조산리로 옮겨와 1765년에 폐지되었다.

산성포 만호에 대한 기록은 세종 4년(1422년)과 세조 8년(1462)이므로, 대포가 양양군 조산리에 설치되었던 1490년의 기록보다는 68년이나 앞선 기록이며 산성포를 대포로 비정하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다.

3-1. 현재 지명과 산성포(山城浦)

그렇다면 양양도호부 관내에 산성포(山城浦)라는 곳은 어디일까?

한자사전에서 ‘포(浦)라 함은

- ㉠ 개(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 물가
- ㉢ 바닷가 ㉣ (강이나 못의)수면(水面) ㉤ (물이)흐르다 로 표현된다.

즉 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이나 바닷가에 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항구(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를 표현할 때 한자에서는 포(浦)가 진(鎭)보다 작다.

다만, 작은 나루터 격인 진(津)과는 크다. 즉, 수군에서의 진(鎭)은 지금의 함대사령부급으로 비견되며, 포(浦)는 함대의 파견기지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속초 · 양양지역의 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속초시의 옛 지명인 속진(東津), 속사포(東沙浦)¹⁷⁾,

16) 襄陽都院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二年 自江陵安仁浦 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二十尺’.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17) ‘長風拍肩 曠漠豪爽’ 五里由花盡浦 行十里入襄陽境 五里至永郎浦 過東津東沙浦’, 『成齋集金剛觀』#21465;

양양군의 광정진(上光丁里), 낙산진 등 동해안에 수많은 진과 포들이 존재한다.

양양군의 지명에서 호수, 진(津), 진(鎭)의 흔적을 찾아보면, 호수는 쌍호(손양면 오산리), 포매호(현남면 전포매리)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마을지명유래에서 호수의 흔적이 있던 곳은 양양읍 포월리, 손양면 학포리, 동호리, 현남면 임호정리가 있는데,

양양군 마을지명의 유래¹⁸⁾를 보면 <표1>과 같다

| 마을지명 | 유래(전설) |
|----------------|--|
| 양양읍 포월리(浦月里) | 신라, 고려시대에 마을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
| 손양면 학포리(鶴浦里) | 약500년전에 적성동(赤城洞)이라고 칭하였는데 정조대왕때 박진사가 송전리앞에 일호(一湖)가 있으므로 호명을 쌍호라 칭하고 백학이 상집(翔集)함으로 학포리라 칭하였다 |
| 손양면 동호리(銅湖里) | 양양국제공항 동쪽마을이다. 500년전에 큰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의 빛이 구리색 같아서 구리개, 굴개라고 불렀다. 『여지도서』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굴포진리로 불렀다. |
| 현북면 상광정리(上光丁里) | 현북면의 중심지이며, 최초에는 광정진(光丁鎭)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중광정리와 본동 경계지인 잣골 뒷산 능선에 고대에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광정진을 설치하였는데, 지금도 진의 성지(城址)석축 흔적이 남아있다. |
| 현북면 기사문리(基士門里) | 내외마을로 구분하여 옛날에는 내칭은 초진(草津)이고, 외칭은 기사진(基士津)으로 칭하였다. 『여지도서』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초진리로 불렀다. |
| 현남면 임호정리(臨湖亭里) | 임호평야가 과거에는 호수로서 임호(臨湖)라고 하였다. |

< 표1 - 양양군 마을지명의 유래 >

이상과 같이 뜻을 중요시하는 한자어의 의미를 볼 때 '진(津)'은 나루터, 강의 배가 떠나는 곳으로 풀이가 되며, '진(鎭)'은 한 지역(地域)을 진안(鎭安)하는 군대(軍隊) 또는 그 우두머리로 풀이가 된다. 중요한 부분은 00진(00津)으로 끝나는 지명보다는 00진(00鎭)으로 끝나는 지명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때 광정진(光丁鎭)이 제일 유력하고 볼 수 있다.

18) 『양양군지』 제8편 문화재 · 지명유래 P1595~1630, 2010, 양양문화원

광정진이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는 건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¹⁹⁾에 ‘현북면 상광정리 사유지이며, 상광정리의 서북쪽 약 백오십간의 작은 언덕 위에 있음. 연장은 약 이백간으로 토축이며, 불완전함’이라 하였다. 또한 양양의 『향토지』²⁰⁾에는 ‘현북면 상광정리에 구허(舊墟)가 있다. 성북(城北)의 남북(南北) 길이가 60간, 동서가 약 삼백간, 산에는 석성(石城)을 쌓은 성지(城址)가 완연히 남아있으며, 일찍이 여진과 왜관의 침입을 방어한 터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정진 또한 잣골뒀산 능선에 즉, 내륙에 설치한 진(鎭)일뿐만 아니라 해상에 설치한 진이다. 또한, 여진과 왜구의 침입대비가 목적임을 미루어 판단할 때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사문리 일대의 포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²¹⁾

따라서, 현재의 양양군 지역에서 대포영외에는 만호가 지휘하던 산성포의 위치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속초지역에서는 산성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수군기지 속초포(東草浦)가 위치한 청초호(靑草湖)에 대해 다시한번 옛 기록들을 살펴보자.

속초포(東草浦)는 현재의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호수로 청초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城湖)라고도 불리었으며, 영랑호보다 그 형세가 뛰어났다고 하는 호수이다.

세종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28일 기사에서 “호조에서 계하기를, 강원도 영동(嶺東) 각 포구의 선군(船軍)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영(兵營)에 딸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雙城浦)와 삼척포(三陟浦) 등 철을 생산하는 곳에 선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하게 하고, 기타 철이 나는 각 포구에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그 군인으로 하여금 매일 과정으로 일을 하게하고, 감사는 관원을 보내서 시험하여 생산하는 수량을 요량하여 정하고, 본조에 통보하여 회계하여 시행하게 하되, 3월부터 8월까지의 동안은 철을 제련하고, 9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는 소금을 굽게 하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²²⁾ 라고 했으며,

19) 조선총독부, ‘縣北面 上光丁里 私有 上光丁里ノ西北 約百五十間ノ 小丘上ニアリ. 延長約二百間 土築, 不完全’ 앞의 책 p541, 1942.

20) 앞의 책 p156, 1976, 양양문화원

21) 유재춘, 『동해안 수군유적연구—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p41, 『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22) 〇戶曹啓: “江原道嶺東各浦船軍不供他役, 且無營田” 雙城浦 三陟浦産鐵之地, 可令船軍陶沙冶鐵, 其他産鐵各浦, 亦依此例, 其軍人日課, 監司差官試驗, 量定額數, 移關本曹, 會計施行” 自三月至八月冶鐵, 自九月至翌年二月煮鹽, 以爲恒式” 從之 『세종실록』영인본】 2책 667면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권44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여지도서(1757년 완성)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40리 주위가 20리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대동지지(1866년경 완성)에는

- 청초호(靑草湖) : 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改 고려때 만호영을 설치하였으며, 선박을 정박하였다. 현재 폐하였다.
- 대포진(大浦鎭) : 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移江陵安仁浦萬戶于此 中宗十五年築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後革 동12리에 있다. 성종21년 강릉 안인포에서 옮겨 왔다. 중종15년 돌로 쌓았으며, 주위는 1,469척이며 나중에 폐하였다.

현산지 수원(水源)조에는

- 청초호(靑草湖) : 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氷含有干項犁破之 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耕以此占歲豊凶一名雙成湖 군의 북쪽 삼십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십 리이다. 매년 겨울 얼음이 밭을 갈아엎은 형상으로 언다. 일명 쌍성호이다.

현산지 진보조에는

- 물치진(沕淄津) 在府北二十里 물치진 부 북쪽 20 리에 있다.
- 束草津 在府北三十里 속초진 부 북쪽 30 리에 있다.
-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덕산진 부 북쪽 25 리에 있다.
- 개마호(蓋馬湖) : 재부 남쪽 40 리 주위 45 리
- 쌍호(雙湖) : 재부 동쪽 5 리

양양부읍지 숲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40리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동국여지지(1660~1674년대 추정) 권7 양양 산천조에는,

- 청초호(靑草湖) :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부의 북쪽 40 리에 있다. 간성군과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1899년) 2 산천조에는,

- 청초호(靑草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 리에 있다. 둘레가 20 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조선지리지(1910~1900년) 도진(渡津, 나루터)명에는,

- 청초호(靑草湖, 우리말 속쇠기목) - 현재 청초호
- 남애포(南厓浦, 우리말 람의기) - 현재 남애항
- 해암포(蟹岩浦, 우리말 기바우기)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포구(浦口, 작은항구)명에는,

- 속진(束津, 현재의 영금정 일대), 웅진(甕津, 현재의 외웅치), 수산진(水山津, 현재의 수산리)가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에 만호영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191년대에 간행된 『조선지리지』까지 볼 수 있다. 다만, 이 기록들이 청초호에 대해 만호영(萬戶營)의 존재여부만을 언급했을 뿐인데, 1866년경에 완성된 『대동지지』에는 청초호에 만호영이 고려 때 설치되었다고 그 설치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3-2. 청초호 지형과 산성포(山城浦)

앞서 말했듯이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의 현존하는 역사상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군사적 용도로의 포(浦)는 2곳이 존재한다.

하나는 양양군 조산리의 대포(大浦)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청초호에 있던 속초포(東草浦)이다.

그렇다면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아 대포영을 제외한 남은 한 곳은 속초포이다.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산성포를 혁파하려는 이유 등을 통해 속초포(東草浦)가 산성포(山城浦)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을 보면 산성포 혁파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1〉1928년 속초항 신축기념 엽서



〈사진2〉1960년대 청초호내 전경모습

지난 2010년 사할린에 거주하는 전상주씨가 고국을 찾아 설악신문에 기증한 일제강점기 시절, 1928년 속초항개발 기념을 위해 제작된 속초항엽서²³⁾를 보면 바다에 모래가 드리워져 육지 쪽에 있는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없는 형상이다.

이 사진의 현재 위치는 속초우체국 앞 바닷가로 추정되며, 한명회가 말한 바와 같이 속초포의 위치가 청초호 안쪽으로 비정할 때 속초포의 포구(浦口)에 해당되는 위치이다.

또, 주교리에 사시던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일제시대어느 날인가 갑자기 굉장한 소리가 나서 나가 봤더니 사구를 비롯한 배다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마도 사구가 제 모습을 잃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속초항 개발이 시작된 속초항수1932년경²⁴⁾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청호동에 사시던 이광수씨²⁵⁾가 부친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6.25전후까지는 맑은 날이면 사구가 보여 부월리쪽에서 속진리쪽으로 갈 때면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분에 말에 의하면 중앙동, 동명동쪽의 사구는 1950년대 까지는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의 지명중에 '주교(舟橋, 배다리)²⁶⁾'라는 지명도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을 표현한 지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양(襄陽)지역 중 속초포(束草浦)가 소재한 곳은 도천면(道川面)이다. 도천면에 위치한 관방성(關防城)들은 권금성(權金城), 토왕성(土王城)이 있다. 권금성, 토왕성 모두가 산성을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속초포(束草浦)라는 지명으로 된 만호영의 위치가 권금성, 토왕성 산성 동쪽 앞 바

23) 80년 전 빛바랜 엽서 "속초항" - 사할린 전상주씨 기증, 2009. 1. 12일자 기사, 설악신문

24) 관리번호 CJA0014081 속초항수축공사(도면첨부), 국가기록원

25) 이광수, 58세, 현 속초시 조양동 거주

26) 주교(舟橋, 배다리) :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북반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달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속초의 땅이름』p129, 2002년, 속초문화원

닷가에 위치한 연유로 산성포(山城浦)라는 이명(異名)이 생겨났을 확률이 높다.

동국여지승람²⁷⁾에 낙산사 사찰기록에 있다고 하는 권씨와 김씨가 쌓았으며, 고려 몽골침입시 방어했다는 전설이 있는 ‘권금성’과 여지도사²⁸⁾에 토(土)씨 성을 가진 왕이 쌓았다는 ‘토왕성’이 조선시대에도 군사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관방조에는 대포영만 있을 뿐 권금성과 토왕성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만기요람(1808년)』²⁹⁾과 『증보문헌비고(1770년)』에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關防)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海防)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雙城湖),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권금성과 토왕성이 변방의 방어를 위해 이용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68. 4. 3.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故박공달(1954년 속초소방대장 역임)씨에 의해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철모(투창의 앞부분) 4점(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중)이 되어 설악산을 포함한 이지역이 옛날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셋째, 속초시 노학동 탄봉마을 위치한 일명 척산만호점사유허지(尺山萬戶僉事有墟址) ‘-물론 만호와 점사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와 미시파령, 원암역, 인근 고성군 죽왕면·토성면지역의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주요성지·봉수대 및 전설 등을 통해 이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지금의 고성군 읍지인 『간성군 읍지(원 수성지 原水城誌)』에는 ‘미시파령에 대해 군남쪽 80리 옛날에 소로 길이 있었으나, 없어져서 현재는 행인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있으며, ‘1493년(계축, 성종24년) 양양부 소라령이 험하고 좁은 고로 다시 이 길을 열어 양양·간성 양 읍의 관로(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하였다’고 했다.

수성지 원암역에 대해서는 군 서남쪽 60리 미시파령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다시 양양 오색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양양 원암역이 양양 오색역으로 옮겼다고 하는 기록은 ‘수성지’에만 기록되어 있다.

고성군 원암역(元巖驛)은 강원도 속초시와 인제군 사이에 있는 해발 767m의 고개로 여수파령(麗水坡嶺),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도 한다.

세조 8년(1462년) 29권 기사에 ‘오색역을 상운도 소속으로 한다고 하여, 오색역의 개설시기를 추측

27)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卽此 설악산 정상에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고적조>

28)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尙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29) 高城高城浦, 今廢 松島 麗時 東眞國以舟師來圍 焚戰船 杆城 襄陽雙城湖, 今廢 大浦 今廢 江陵安仁浦 今廢 三陟三陟浦, 今廢 藏吾里浦 東海船泊處 有斥? 古縣浦, 今廢 ?陵島 有事實 錄于左 平海越浦, 仇珍浦, 正明浦, 厚里浦 右三浦 俱有斥? <만기요람 해방조>

할 수 있으며, 성종8년(1477) 75권에는 오색역이 극심하게 잔폐하여 모든 공급을 지탱할 수 없으니 공수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라 20결을 주어 회복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 1477년까지는 오색역이 계속 운영되었음을 알려준다.

원암역이 오색역으로 옮겨간 세조 8년(1462년)은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滄)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蔚珍)과 삼척(三陟)의 양 포(浦)는 도적이 지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수령으로써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事變)이 있으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하는 기사와 일맥상통한다.

즉 산성포가 해군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군사적 요충지역할을 하던 만호첨사유허지와 원암역을 폐하고 각각 울진삼척과 오색역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만호첨사유허지, 원암역 이외에 산성포주위의 군사적 주요 시설물들의 흔적을 찾아보면

하나, 관방시설인 권금성과 토왕성이 있는 설악산 소공원쪽에서 산성포(청초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목우치(牧牛峙, 현재의 목우재)가 있다. 목우재(牧牛峙)³⁰⁾는 척산, 도리원, 노리 등 현재의 노학동일대의 소아평야에서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로 넘어오다 우마에게 풀을 뜯어 먹이며 휴식을 취하던 고개로 권금성, 토왕성을 거쳐 수군만호유허지, 청초호 수군기지로 가는 최단 지름길이다.

둘, 수성지의 산(山)조에 의하면, 천후산(지금의 울산바위) 밑 미시령인근에 방수(防守)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 등 국가 간의 전쟁 시 일시적이거나 오래동안 양 전쟁국가 간의 국경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 고성군 지명유래지의 죽왕면 문암리의 전설³¹⁾을 보면 '삼국시대에 신라유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겸업으로 하고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확장으로 고구려군사들이 신라 땅인 이 마을을 침략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넷, 미시령 인근의 고성군 죽왕면, 토성면 일대에 많은 성지城址와 봉수지(烽燧址)가 존재한다.

다섯, 속초포가 있던 청초호가 조선시대에는 일명 '쌍성호'라 불리었으므로 사초의 기록에 의해 '쌍성호(雙成湖) ⇒ 산성포(山城浦)'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권44 양양 산천조³²⁾에는 지금의 청초호를 쌍성호(雙成湖)로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나, 문제는 사료마다 쌍성호의 한자표기에 있어 '雙城湖'와 '雙成湖' 오 달리 표기하

30) 김명환, 「내 고장의 옛 지명」, 1988, 「속초문화」제4호 p50

31) 고성군문화원, 「고성군지명유래지」, 1985, p248

32) 쌍성호(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關門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신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고 있다는 것이다

| 한자 | 기록 문헌 |
|----------|--|
| 쌍성호(雙城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7년 을사(1425, 홍희 1) 4월26일 (을축) 기사 ○ 연려실기술 16권 산천의 형승中 ○ 취제선생유고집3-관동록 ○ 만기요람 군정4편 해방조 |
| 쌍성호(雙成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지 ○ 여지도서 ○ 양양부읍지 ○ 강원도양양군읍지 |
| 청초호(靑草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지지자료 ○ 대동지지 ○ 현산지(청초호 일명 쌍성호) |

〈표2- 각종 문헌상에 기록된 쌍성호(雙城湖), 쌍성호(雙成湖), 청초호(靑草湖)〉

대동지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려 때에도 청초호에 만호벼슬이 지휘하던 수군이 있었다고 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옛날 경지(境地)의 개념의 지금의 선(線)개념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地域)개념의 행정구역임을 감안할 때, 속초라는 지역이 조선 초까지만 해도 군사상 요충지였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즉, 고려시대의 익령현의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수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이다.

잠시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속초지역에서 고려시대 흔적을 찾아보면

하나, 조선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던 덕산(德山, 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이라는 곳은 중국 원나라 연호인 지대 2년(1309)에 삼일포매항비 비문에서 '용화회주이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며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 우리들도 함께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삼보를 공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 십시오' 라고 기원드리며 양양 덕산망(德山望)에 매항(향나무를 심음)하였다고 기록이 전해지며,

둘, 고려 충정왕 1년(1349)에 씌어진 『동유기』에 신라 사선이 영랑호를 순례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강릉도준무사 안축과 같은 명신(名臣)이 영랑호를 찾아 시를 남긴 기록이 있으니, 속초는 현재도 전국 최고의 관광지이지만, 고려시대 때에도 최고의 관광지가 아니었던가 싶다.

셋, 수군만호첨사유허지에서 가까운 노학동 무당골에서 발견된 '노학동 3층석탑'은 사방불이 조식된 고려중기의 석탑양식이다.

넷, 속초시 교동 산 199번지 교동택지개발구역의 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우점문완(靑瓷象嵌雨

點文 盥)과 청동숫가락은 고려시대(14세기말) 후기의 유물(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로 고려시대 이 지역에 상당한 지위가 있던 세력이 존재했었음을 암시해 준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이 지역의 호족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보면

고려사절요-목종 10년(1007년) 10월 기사에 흥화진(興化鎭; 평북 의주군)·익령(翼嶺; 강원 양양군)·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 라는 기록을 볼 때 1007년(목종 10년)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말 1385년(우왕 11)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가 되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쌓았다.

낙산사 승려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년)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실시한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에서 권금성이 고려시대(1253년)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병화를 피하기 위해 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³³⁾

전설에 의하면 권씨와 김씨가 쌓았는데, 권씨는 안동권씨세보에 의하면 양양권씨로 칭 할 정도로 파벌이 강했던 권씨가 존재했었다.

『고려사절요』충렬왕 9년(1283) 4월 기사³⁴⁾에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이 원나라에 고하기를, 고려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지방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전지는 아직도 고려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4만 석은 얻을 수 있으니, 동정군의 군량에 충당하소서.’ 라고 고한 사실이 적혀있

33)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보고서』 101p, 2007, 강원문화재연구소

34) 東界杆城人宋蕃(동계간성인송번) :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이
告於元曰(고어원일) : 원 나라에 고하기를,
高麗東西界(고려동서계) : “고려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지방이
歸於朝廷(귀어조정) : 조정에 들어갔지만,
其田(기전) : 그 전지는
尙爲國人所有(상위국인소유) : 아직도 고려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計其畝(계기무) : 그 면적을 계산하면
可得四萬碩(가득사만석) : 4만 석은 얻을 수 있으니,
請充東征軍糧(청충동정군량) : 동정군의 군량에 충당하소서.” 하니,
中書省(중서성) : 중서성에서
遣人徵之(견인징지) : 사람을 보내어 이를 요구하였다.
王問宰樞曰(왕문재주왈) : 왕이 재신과 추신들에게 묻기를,
朝廷(조정) : “조정에서 以蕃之言(이번지언) : 번의 말을 듣고
益發軍糧四萬碩(익발군량사만석) : 군량 4만 석을 더 내라고 하니
奈何(내하) : 어찌할꼬.” 하니, 對曰(대왈) : 대답하기를,
前者(전자) : “지난번에 庚賙(유주) : 유주가
請賦二十萬碩(청부이십만석) : 20만 석 부과할 것을 청했는데,
家抽戶斂(가추호렴) : 집집마다 추렴하고
至於(●獨(지어경독) : 의지할 데 없는 궁한 사람까지 모두 긁어 모아

다. 비록 간성군 사람이지만, 양양과 간성군의 경계지역인 속초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지방호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단종 11권, 2년(1454년) 4월 25일(병오) 3번째³⁵⁾ 기사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양양(襄陽)의 향리(鄕吏) 가덕(加德)이 부사(府使)를 능욕(陵辱)하였으니...”라는 기록으로 보아, 지방향리(호족)의 세력이 호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종 31권, 4년(1473년) 6월 26일(을유) 3번째 기사에서는 “이조에서 이시애를 토벌할 때 증정한 향리 이계의 등을 면역할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이시애(李施愛)를 토벌(討伐)할 때 증정(從征)한 향리(鄕吏)로서 1등은 ... ,간성(杆城)의 최연수(崔延壽)·윤경신(尹耕莘), 2등은 강릉(江陵)의 함유문(咸有文), 양양(襄陽)의 이을산(李乙山)..”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좀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각종 명문기와(名文起臥)가 출토되는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³⁶⁾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사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속초리성지에서 발견된 명문(名文)중에서 주목할 만한 명문은

- 『연(沿)』· 『변(邊)』· 『관(官)』자(字) 명문(사진3 참조)이 가장 많으며,
- 팔승(?)원(八員) - 이지역의 지명가능성이 높음(사진4 참조)³⁷⁾
- 양개(良介) 개(介, 큰흙 개) - 제후를 봉한 신표로 쓰던 1자 2치의 대구(大圭)(사진5 참조)

또한 이 지역 구장(그 당시 속초리 3구)을 지내신 故정태현(鄭泰賢, 1998년 작고) 어른신의 증언에 의하면, 6.25때 수복탑에 있던 집이 미군 LST수송선 기지를 만들기 위해 헐려서 지금의 장안골로 이주하였는데, 집을 짓기 위해 집터³⁸⁾를 파보니 온돌용도로 추정되는 아궁(너비 4~5m정도)이 흔적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명절 때가 되면 이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주위에 흩어져 있는 기와를 갈아 제기를 씻곤 하였다고 한다.

僅得四分之一(근득사분지일) : 겨우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若增四萬(약증사만) : 만일 4만 석을 더하기로 한다면

何以辦之(하이판지) : 어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宜更遣人奏請(의경견인주청) : 다시 사람을 보내어 주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35) 義禁府啓: “襄陽鄕吏加德陵辱府使, 頑惡莫甚, 雖在赦前, 不可不懲, 請永屬他道殘驛吏.” 從之
단종실록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4월 25일(병오), 태백산사고본

36) 城址 道川面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 / 西方二 近接セル 小丘上二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지,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37) 襄州副使朴瑬施納北反伊員奮二結陳 양주부사 박전은 북반이원에 있는 진담 2결, 通川副使金用卿施納 壤原代下坪員奮二結陳 통주부사 김용경은 양원대하 평원에 있는 진담 2결을 시주했다고 하여 한국금석문화회에서는 00원(00員)을 '지역명칭'으로 해석하였다.

38) 현 속초시 동명동 450-25번지

여섯, 속초시 조양동 청대산 휴양림조성 예정지에서는 철마, 기와파편, 토기파편 등이 발견되었는데, 기와의 문양으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성황당을 짓기 위해 근처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주민들의 증언으로 보아 그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³⁹⁾

일곱 '대동지지에 청초호에 만호영이 설치되었다' 라는 지문 중 만호(萬戶)⁴⁰⁾는 고려말에는 중앙에서 해당지역에 파견하는 관리이고, 천호(千戶)는 지방의 토착세력을 임명하는 직임으로 구분되며⁴¹⁾, 만호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만호와 재지토호로 임명되는 만호가 있다고 한다.⁴²⁾

이밖에도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속초리성지와 고려시대에 쌓은 권금성, 교동택지개발구역에서 청자상감우점문완(靑瓷象嵌雨點文 盃) 및 청동숫가락을 간직한 고려시대 고분, 노학동 무당골의 고려중기의 3층석탑 등을 속초지역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볼 때 청초호의 수군만호영도 고려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옛날 경지(境地)의 개념의 지금의 선(線)개념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地域)개념의 행정구역임을 감안할 때 속초라는 지역이 조선초까지만 해도 군사상 요충지였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Ⅲ. 맺음말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鎭)들을 두었으나.....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 수군만호가 지키는 곳)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라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속초라

39)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예정지 지도위원회 보고서」, 2009 강원문화재연구소

40) 수군만호(水軍萬戶) 조선시대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이다. 원래는 몽골(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이었다.

개경(開京)의 수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마산)·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만호는 거느리는 군대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 다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본래 만호·천호(千戶)·백호(百戶) 등은 그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민호의 수효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였다. 육군에서보다는 수군(水軍)에서 이 관직명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진체제가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1484년 을사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삼척포·진관·안인포, 울진포, 고성포, 월송포),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검사복·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출처 : 대전회통

41) 「조선전기수군만호고」p9~38, 張學根, 1987, 해사는문집

42) 「조선초기의 변진방위와 병마첨사만호」p102, 吳從祿, 1989 역사학보

는 우리지역의 이름이 문헌상에 최초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군만호가 지키던 해군기지가 청초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명 칭 | 추정연대 | 주요내용 | 출 처 |
|----------|--------------|---|----------------------|
| 속초포(束草浦) | 1398년(태조6년) |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 진보조 |
| 산성포(山城浦) | 1422년(세조 4년) |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 세조 권15, |
| 쌍성포(雙城浦) | 1425년(세조7년) | 강원도 영동(嶺東) 각 포구의 선군(船軍)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兵營)에 딸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雙城浦)와 삼척포(三陟浦) 등 철을 생산 하는 곳에 선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 하게 하고... | 세조 7년(홍희 1) 4월28일 기사 |
| 산성포(山城浦) | 1462년(세조 8년) |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 하기가 어려우며... | 세조 권29권 |

〈표3 - 세종실록․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의 이명(異名)〉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으로 인해 산성포가 혁파되었다.

둘째, 양양지역 중 속초포가 소재한 곳은 도천면이다. 도천면에 위치한 관방성들은 권금성, 토왕성이 있다. 권금성, 토왕성 모두가 산성을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속초포라는 지명으로 된 위치가 권금성, 토왕성 산성 동쪽 앞 바닷가에 위치한 연유로 산성포라는 이명(異名)이 생겨났을 확률이 높다.

셋째, 속초시 노학동 탄봉마을 위치한 일명 ‘척산만호첨사유허지(尺山萬戶僉事有墟址)-물론 만호와 첨사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와 미시파령, 원암역, 인근 고성군 죽왕면 · 토성면지역의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주요성지 · 봉수대 및 전설 등을 통해 이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넷째, 속초포가 있던 청초호가 조선시대에는 일명 ‘쌍성호’라 불리었으므로 사초의 기록에 의해 ‘쌍성호(雙成湖) ⇒ 산성포(山城浦)’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쌍성호(雙成湖) ⇒ 산성포(山城浦)’의 변화과정은 문법적으로는 해석될 수는 없다. 다만 왕에게 말할 때 ‘ㅅ’의 경음발음을 피하기 위해 ‘쌍’을 ‘상’으로 발음한 것을 ‘산’으로 적어 산성포가 되었을 수 있

다.

또한 속초포(束草浦)는 산성포(山城浦)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태조6년인 1398년 설치되어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종 1462년경에 폐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해안의 설치된 수군기지의 목적은 주로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고려 때부터 설치되어 조선 초까지 운영되어오다 조선중기에 삼척포 등 주요 진(鎭)이 거의 대부분이 헐파된 것으로 보인다.

산성포(山城浦)가 헐파된 시기도 1443년(세종 25년)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이 대마도주(對馬島主) 중정성(宗貞盛)과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대해 맺은 계해약조이후 왜구의 침탈이 잦아든 시기로 1510년(중종 5년) 제포(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주 중정친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삼포왜란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명문기와(名文起臥)가 출토되는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⁴³⁾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사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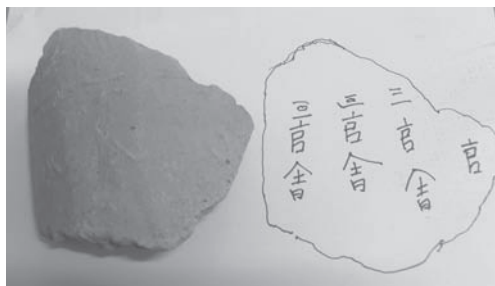
이상으로 속초포(束草浦)가 산성포(山城浦)라는 주장을 각종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나, 추후 좀더 자세한 문헌고증과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43) 城址 道川面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 西方ニ 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지.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IV.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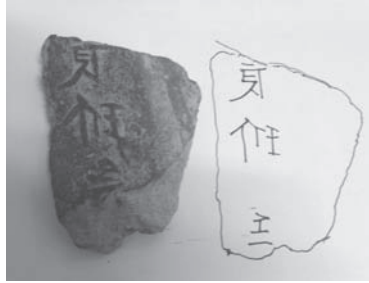
〈표4 - 속초지역 관방 유적 위치도〉



〈사진 3 - 관(官)자형 명문기와〉



〈사진 4 - 팔승원(八●員) 명문기와, '승' 자에 대한 정확한 해독 필요〉



〈사진 5 - 양개? 명문기와〉



〈사진 6 - 노학동만호첨사유허지 표출 기와〉



〈사진 7 - 노학동만호첨사유허지〉

V.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경국대전 병전
 대전회통
 만기요람 해방조
 증보문헌비고
 문화원형백과사전
 양양군지
 신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成齋集 金剛觀●』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내고향 속초」 김정우, 1984
 「조선고적보물조사」 조선총독부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정장호,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제13집
 『동해안 수군유적연구-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유재춘, 2010, 『이사부와 동해』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관리번호 CJA0014081 속초항수축공사(도면첨부), 국가기록원
 「내 고장의 옛 지명」김명환, 1988, 『속초문화』제4호
 『양양군지』 제8편 문화재․지명유래, 2010, 양양문화원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보고서」, 2007, 강원문화재연구소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예정지 지도위원회 보고서」 2009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선전기수군만호고」p9~38, 張學根, 1987, 해사논문집
 「조선초기의 변진방위와 병마참사·만호」p102, 吳從祿 1989 역사학보
 「고성군지명유래지」고성군문화원, 1985, p248

결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작년에 사진반을 개설하여 큰 호응이 있었는데, 올해 여건상 폐지하였다"고 하여, 서로 원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실 제공 및 공동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했습니다. 전 동우대 사진과 교수였으며, 현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평가위원이신 김홍수교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뵈었는데, 흔쾌히 승낙하셔서 어려울 것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진과 문화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지역의 문화를 사진으로 녹여내어, 지역문화관광 홍보 등 다양한 사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1 어르신문화학교 실버들의 문화 디자인 '속초 실버프로듀서' 양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려 하였는데, 신청접수만 40여명. 4월 말부터 시작된 교육 초반 몇몇 어르신의 청강, 나는 왜 이 교육을 못받냐고 항의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며, '사진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지역어르신들이 정말 많았구나'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 사진 원리와 작동법에 대한 교육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은 바로 컴퓨터. 디카의 특성상 컴퓨터를 모르면 반쪽짜리 교육밖에 될 수 없었기에 어르신들의 최고 난이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보내기, 사진파일을 포토샵으로 다듬기, 프린터로 출력하기 등 교육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주르르. 젊은 저희들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매주 교육은 전에 배웠던 것들을 반복, 반복,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배우신 어르신과 처음 접해보신 어르신 사이의 편차는 날로 늘어나고, 교육받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시는 어르신들 역시 늘어났습니다. 교육 중반쯤 지나니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약 15~18명 정도. 이분들 중 소수는 한번 건너 나오시는 일명 '나이롱' 학생이셨지요.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점점 소수정예화 된다는 느낌은 큰 메리트로 작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육이 4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서 문화학교를 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이론교육만 진행하는 것은 자칫 어르신들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설악문화제 기간 중 어르신 작품전시회와 축제 참가자 분들에게 사진을 찍고 현상해주는 문화봉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 중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니 모두 기겁하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전시회는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야." 등 부정적인 이야





기만 오갔습니다. 강사님과 저희들은 “사진 찍고 전시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여 찍는 사람이 곧 사진작가입니다. 어르신들 또한 사진작가입니다.”라며 두 주간 이야기하다보니 설득되었습니다. 주제를 속초 풍경, 가족이야기로 설정하여 어르신들이 찍으신 사진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모집된 사진을 보니 주제와 부합되는 사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중 40점을 선별하여 10월 22~23일 설악문화제 기간 중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회 당일 쭉뚝한 모습으로 전시회 부스를 찾아오셔서 본인의 사진을 명하게 보시는 어르신, 딸과 함께 오셔서 웃으며 사진을 감상하시는 어르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본인의 사진을 감상하시는 모습은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진문화봉사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프린터가 망가지는 이유로 진행

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소수정예 사진반의 의지는 더욱 높아지고, 어르신 스스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감상하며 더 좋은 구도와 기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어르신문화학교 교육이 마무리가 되던 중, 또 한 번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작품전시회를 갤러리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설악문화제 기간 중 미흡했던 점을 보완·발전시켜 사진전을 열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의 반응은 긍정. 어르신들의 긍정의 힘을 빌려 빠르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시회 장소는 김홍수교수님의 개인 갤러리 ARTE&SOO에서, 작품 수는 60점으로 하여 11월 22~24일 동안 전시회를 하며 수료식도 함께하기로 계획. 사진모집, 팸플릿 제작 등 준비과정을 거쳐 어르신문화학교 작품전시회 ‘은빛시선-빛을 열고 시간을 담다’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진행하였

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속속초에 없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어르신들의 사진을 보며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스스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의지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1 어르신문화학교 실버들의 문화디자인 '속초 실버프로듀서' 양성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에게 많은 일감을 만들어 주어, 사업기간 동안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돌이켜 보면 강사, 교육생 그리고 저까지 많은 것을 알아가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자(장미)님께서 힘들게 쓰신 소감문이 아직 기억납니다. "사진반 수업을 받으며 학생이 된 마음으로 촬영을 하면서, 차츰 어떨 때는 사진작가가 된 기분으로

멋있게 찍었다고 생각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도 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진공부의 필요함과 즐거움을 알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글 잘 쓸 줄 몰라. 뭘 써야 되?" 하시며 구불구불 한 글자씩 정성껏 쓰신 모습과 그 많은 연세에도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보이는 글을 보며 제 자신에 대한 반성과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소수정에 어르신들과 사진동아리로 활동하며 지역의 모습과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사진에 담을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며 나타난 시행착오들과 고민들이 자양분이 되어,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알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사대중화사업

글_ 전담강사 김승아

소소한 일상이 만든 삶의 공간, 속초

우리는 때로 너무 커다란 것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여서 학교에서도 세계사나 한국사에 관해서는 비록 주입식교육 일지언정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된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향토의 역사나 문화에 관해선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탐구의 향토사부분에서 접하는 게 학교교육의 전부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속초문화원에서 '지역문화의 문화재적 사고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문화를 재해석한 일상적이고 미래지향적 지역문화 선도'라는 목표로 시작한 향토사대중화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사는 지역을 탐방하며 둘러보고 주민을 인터뷰하고 자료 찾아보고 탐방결과를 글

로 적어 보는 전 과정을 통해 향토사에 대해 관심 갖고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속초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사진, 동영상, 인터뷰 및 기록을 담당하는 각 모둠을 만들어 장천마을, 영랑동, 동명동, 영금정, 수복탑, 아바이마을을 탐방하며 속초의 근현대사 시간여행을 했다.

특히 장천마을은 대학 4년을 제외하고 40년을 넘게 속초에 살고 있는 나도 처음가보는 곳이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동명동 성당이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성당주변을 둘러보고 사진 찍고 성당연혁에 관한 자료 살펴보는 것으로 그쳐야만 해서 많이 아쉬웠다. 이를 통해 향토의 역사나 고장의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것을 스토리텔링 해 줄 수 있는 지역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적자원인지 깨달았다.

또한 수복탑과 아바이 마을탐방에선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관련된 실향민의 정착과 이산가족과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기도 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속초가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새겨진 삶의 공간임을 알아가게 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다 보니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모이기 힘들어 날짜를 변경해야 했고 꾸준히 출석하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 중간 출석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함께 탐방하고 기록한 결과물들을 정리할 때 연결이 좀 힘들었다.

현실상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학생들

의 참여가 힘들다. 평일엔 보충과 야자로 주말엔 학원과 과외수업으로 시간내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학교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입시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찾아보고 질문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공부일 테니까.



36년 동안 장학사업, 평생의 뜻으로

중국 조선족학교 16년째 해마다 방문 지원
교육은 천하지근본 강조

엄
경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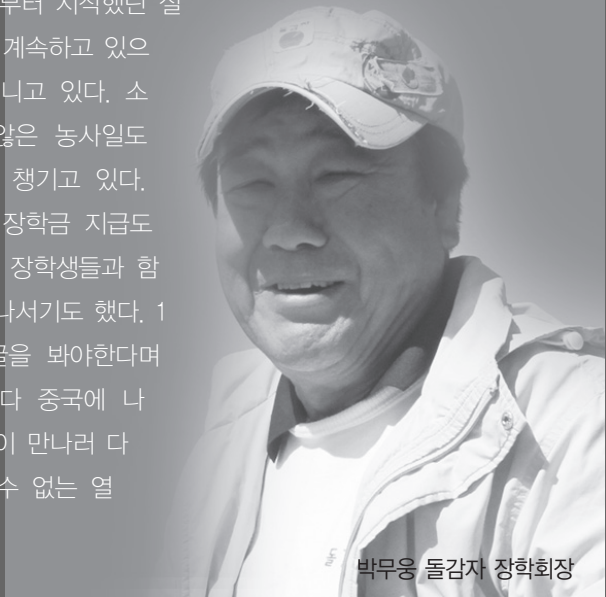
박무웅

돌감자 장학회장

고집불통이다. 그 고집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꼭 하고야 마는 사람. 그렇게 그는 칠십 평생을 살아왔다.

지난 36년 동안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자고 월급쟁이 박봉을 쪼개어 장학회를 운영한 사람. 나이 오십 넘어 건설회사 현장소장 고된 일을 하면서도 경희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을 지원하여 2년반의 야간 과정을 마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고 기뻐한 사람. 서울시민대상을 받고도 도시 생활을 툭툭 털어버리고 한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온 사람. 그 고집쟁이가 바로 박무웅 돌감자장학회장이다.

지금도 그는 2007년 6월부터 시작했던 설악초교 한자서당 훈장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어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다. 소일거리 삼기에는 만만치 않은 농사일도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챙기고 있다. 나이가 들어 그만두겠다는 장학금 지급도 매년 빠짐없이 챙기고 있고 장학생들과 함께 연탄배달까지 자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1년에 한번은 장학생들 얼굴을 봐야한다며 전국을 쫓아다니고, 매년마다 중국에 나가 조선족 장학생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닌다. 일흔 나이를 실감할 수 없는 열정이다.



박무웅 돌감자 장학회장

속초시 도문동에서 밀양박씨 집안 장손으로 태어난 박무웅 회장. 1941년에 태어났으나 호적으로는 1942년생이다. 함경도 아오지탄광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는 조부를 따라간 부친이 그곳에서 뒤늦게 아들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 회장 호적에는 아오지탄광 사택 몇호실로 출생지가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서울시 사무관 진급시험에서 이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탈락되기도 했다고 한다. 부친은 1943년 귀향했으나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전함 만드는 작업장에서 고생하다가 해방 후에 귀국하였다.

설악초교의 전신인 주봉초교 4학년 때 한국전쟁을 맞았다. 할아버지 다섯 형제 중 셋은 남고, 둘은 북으로 갔으니 상도문 동네도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고교 2학년 무렵부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털어서 설악산 소공원에 여관을 지었다. 그러나 설악산 개발 초기라 장사가 안돼 부모님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대대로 물려받은 문중 땅과 집도 모두 잃고 청대리 외갓집 빈 공터에 움막집을 짓고 살아가야 했다.

2011년 10월 3일 속초 청대산 정상에서 열린 돌감자장학회 기념촬영.



속초고를 졸업한 박무웅 회장의 고민은 깊었다. 중앙대 생물학과에 합격했는데, 서울 사는 외삼촌이 등록금이 싼 서울농업대학(현 서울시립대)을 권했다. 취직 잘 되는 과라고 하여 농공학과(농업토목과)에 입학했다.

집에서는 돈 한 푼 안 올라오는 대학 생활. 밥만 얻어먹고 가정교사도 몇 달 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무작정 청량리 신문보급소를 찾았다. 대학생이 무슨 신문배달을 하느냐며 안 된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처음으로 1백부의 신문을 맡아서 돌렸다. 새벽 4시, 아무도 모르게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조간 신문을 돌리고 오후 4시에는 석간 신문을 돌렸다. 세 달 만에 성실함을 인정받아 돌리는 신문이 3백부로 늘어났다.

대학 시절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인 김용기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을 만났다. 1961년 가을 김용기 교장의 강연을 듣고, 학교 뒷문 큰 나무 아래서 덩치에 안 맞게 울음을 터뜨렸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농업을 통해 가난을 퇴치하는데 너희 대학생들이 나서서 성냥불을 그어야 한다” 김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박회장의 가슴에 꽃혔다. 가난으로 절망의 나락에 빠진 박 회장에게 김 교장의 강연은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었다. 대학시절 뼈딴 마음에 다른 아이들을 패 주기도 했다는 박 회장은 김교장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바로 잡았다.

박 회장은 “그 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분은 하늘이 내린 분”이라고 평했다. 장학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김 교장의 영향이었다. 박 회장은 가나안농군학교 초기 개척단으로 활동하고, 부인 남정씨도 1969년 농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다.

해병대를 지원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박회장은 3학년 말부터 두문불출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달려 1967년 서울시청에 취직하였다. 1975년 10월 3일 마니산 단군제단에서 장학사업을 결심한 박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2명의 학생에게 2만원 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36회를 맞은 지금 장학회 가족이 168명으로 늘어났다.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족 2,3세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994년부터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 조선족 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연수현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흑룡강성 연수현 방문길에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1997년 하얼빈에서 연수현으로 삼륜오토바이(딸딸이)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순간 강도가 아닌가 싶어 배낭으로 운전기사를 내리치고는 도망쳤다. 무작정 1시간을 걸어 인근 촌락 촌장집을 찾아가 연수현 학교와 연락이 닿았다. 다행히 촌장들끼리 연락이 닿아 잃어버린 배낭도 찾게 되었다. 당시 가방 속에 있던 설악신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지만, 교육은 천하지근본이다.” 박회장은 장학회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교장은 농촌 계몽에 힘썼지만 자신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장학회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가 50억 지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교육에 눈을 떠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돌 위에 감자 꽃을 피우자. 돌감자 장학회의 취지를 담은 말이다. 척박한 산비탈 돌 틈 사이에서 어렵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우는 감자 꽃.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어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 되는 돌감자 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자는 게 바로 돌감자 장학회이다. 해마다 10월 3일은 돌감자 장학회의 날이다. 이 날은 전국에 있는 장학회 출신 선배와 장학생,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선유도공원에서, 올해는 속초 청대산 정상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09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청봉 정상에서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전국에서 웬만한 장학회 가족들이 다 모였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어린 꼬마들까지도. 만만치 않은 산행을 하고 대청봉 정상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험한 산을 오르듯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의지를 배우자는 박 회장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기념행사였다. 어떤 이는 좀 유별나다고 할 지 몰라도 그게 바로 박무웅 회장의 사랑법이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고 그냥 금전만 오가는 장학회 활동을 박회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박 회장은 지난 11월에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중국 연수현 조선족 학교를 다녀왔다. 해외여행이라고 하지만, 거의 젊은 친구들 배낭여행 수준으로 고달프기 그지없다. 일흔의 나이를 넘기고도 박 회장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일흔의 나이를 잊고 자기만의 사랑법으로 어렵고 힘든 젊은 친구들을 이끌어 주는 박무웅 회장.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책바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1967년 부인 남정씨와의 가나안농군학교 수료 기념하여 김용기 교장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속초 영랑호 제영시의 서정성 고찰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1. 머리말

속초시에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청초호와 신라 영랑의 순유처였던 영랑호라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호(潟湖)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큰 못에 구슬을 감추어 둔 것과 같다는 신라 화랑들의 도량(道場)으로 영랑고사(永郎故事)가 서린 영랑호와 그림 경대의 거울을 연 것과 같다는 청초호가 산과 바다의 교량적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곳이다.”라는 평가가 지극히 온당하다. 석호인 영랑호는 육지가 후빙기 때 얼음이 녹으면서 해변 상승작용으로 바다로 변하고, 그 전면에 해류, 조류 하천 등의 작용에 따라 사주(砂洲), 사취(砂嘴)가 발달, 바다와 격리되어 생긴 것인데, 이곳에는 여러 전설이 담겨서 전한다.

속초시 서북쪽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싸인 영랑호는 둘레 8km, 넓이 120만㎡ 약 36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호수로 ‘영산도지’(映山倒地:호수에 설악산이 거꾸로 비치는 승지) 또는 ‘설악천봉도경중’(雪岳千峰倒鏡中:설악의 천봉이 거꾸로 거울 속에 잠긴 것 같다)이라 읊은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절승이다. 영랑호는 옛 기록에 둘레가 2~30리라 했는데, 호수의 정취는 창해귀범(滄海歸帆:큰 바다로 나갔던 돛단배가 돌아오는 것), 호면낙조(湖面落照:호수 면에 비치는 저녁노을), 보광사모종(普光寺暮鐘:보광사에서 치는 저녁 종소리), 울산부감(蔚山俯瞰:울산바위에서 굽어보는 호수경치) 등이다.²⁾

1)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10쪽

2) 崔承洵, 『太白의 山河』, 강원일보사, 1973, 95쪽 “永郎湖의 情趣로서 滄海의 歸帆, 湖面의 落照, 普光寺의 暮鐘들도 다 뵈 수 없지마는 영랑호의 또 하나의 정취는 울산바위에서 俯瞰하는 맛이다. 背景은 參差한 설악의 峻峰들이 하늘에 솟구쳐 있고 앞은 萬頃蒼波다. 그 어중간에 高요하게 펼쳐져 있는 호수가 울산바위에 올라서면 발 밑에 다가있다. 風致나 觀光은 자연자원인 山水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 사람의 손길이 따라야 하고 사람의 마음이 늘 서려있어야 하는 法이다.”

이 영랑호를 읊은 제영시(題詠詩)는 특정한 경물에 제목을 붙여 읊은 것으로 자연경관이 나 작가의 서정성이 특히 강조된다. 본고에서는 영랑화랑 기록과 유적을 살피고, 영랑호 제영시나 영랑호를 소재한 시문의 정서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시인들이 영랑호를 제목으로 쓴 한시에서 작가의 관점과 감성이 뚜렷하게 투영되었으며, 아름다운 전설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왔다.

영랑호 인근에는 옛 시문에 등장하는 영랑정이 복원되었으며, 2004년에는 화랑도 체험장이 영랑호변 15.576㎡의 부지에 건립되었다. 이곳에는 공연장, 보조승마장, 체험장, 관람장, 한민족전통마상무예협회, 격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화랑영랑축제를 매년 개최했었다. 영랑호는 신라 화랑의 숨결이 깃들고 삼국통일의 기상이 서린 명소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막고, 문화과 설화적 스토리텔링으로 친환경적, 문화유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겠다.

청초호와 영랑호는 속초의 허파와 같은 존재다. 호수가 숨쉴 수 없다면 인간의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호수로서 문화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심

스런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상 석호(潟湖) 영랑호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개발이익보다는 보존과 보호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나가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옛 시문을 보면 영랑호에는 비단결 같다는 청정 순채(蓴菜)가 자랐으며, 우리 같은 수면에는 농어가 뛰놀았다. 어디선가 화랑의 피리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고즈넉한 저녁노을이 깃든 그림같은 시정화의(詩情畫意)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마치 구슬을 담고 있는 듯이 빛나고, 울산암과 달마봉 그림자가 물속에 거꾸로 비친 신선의 경치다. 옛 사람들이 그림배 띄워놓고 뱃놀이 할 때에 말이 필요치 않았다는 유리거울같이 맑고 깨끗한 영랑호를 소재로 쓴 옛 한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2. 속초 영랑호와 유적 기록

영랑호 기록은 오래전으로 소급되는데, 명소로서 널리 알려져 역사기록적 측면, 설화형상화 계획 등 몇 편의 글이 나온바 있다.³⁾ ‘영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호수를 ‘영랑호’ 또는 ‘영랑포’라 불렀는가를 정확하

3) 「文獻에 나타난 永郎湖」, 『映山倒地 永郎湖』, 『東草文化』제4호, 속초문화원, 1988, 14~24쪽
 주상훈, 『花郎과 永郎湖』, 『東草文化』제6호, 속초문화원, 1990, 12~35쪽
 최용문, 『속초 영랑호반에 세워진 근재선생의 시비』, 『東草文化』제15호, 속초문화원, 1999, 76~78쪽
 장정룡 외, 『속초 영랑호 설화의 형상화 계획』, 속초시, 2000

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랑’이 신라 화랑의 이름이라는 것은 문헌고증 상 가능하며, 고려 말의 문헌에 처음 ‘영랑호’가 등장하고 있다.

고려시대 승려 일연(1206~1289)이 지은『삼국유사(三國遺事)』권3에는 ‘준영랑’이 등장하며 그의 이름을 ‘영랑’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서 안상(安常)을 준영랑의 무리라 한 것은 살펴보지 못했다. 영랑의 무리에는 오직 진재(眞才)·번완(繁完) 등이 알려진 사람이며,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世謂安常爲俊永郎徒 不之審也 永郎之徒 唯眞才 繁完等知名 皆亦不測人也)⁴⁾하였다. 이에 따르면 화랑 가운데 영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안축(安軸, 1282~1348)의 시문에도 영랑호, 영랑포가 등장하고 있다.

1349년에 작성한 이곡(李穀, 1298~1351)의 『동유기(東遊記)』에 보면 “초8일에 영랑호에 배를 띄웠다. 해가 저물어 상류까지 거슬러가지 못하였다.”(初八日 泛舟永郎湖 日晚不得窮源)고 하였으며, 「영랑포(永郎浦)」라는 시에서는 사선중의 한 명인 ‘안상(安詳)’을 거론하였다. 위의 기록상 ‘안상(安常, 安詳, 安祥)’은 한자로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동일 인물로서 영

랑을 중심으로 한 사선 가운데 한 명이다.

생육신(生六臣)으로 영동지역을 거쳐 금강산을 다녀온 추강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금강산기」에는 “삼일포란 신라 때 화랑인 안상, 영랑의 무리가 이곳에 와서 삼 일간 놀고 이에 파했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하였으며 “영랑은 신라 사선 중의 한 분”이라고도 언급하였다.⁵⁾

신라의 네 화랑을 따르던 낭도는 무려 3천명이라 했는데 고려 중엽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에 보면, “금란 경계에 한송정이 있는데 옛날 사선이 노던 곳이다. 그 무리 삼천 명이 각각(소나무) 한 그루씩 심었으니 지금도 울창하여 구름에 닿을 듯하고 밑에는 샘우물이 있다.”라고 했다.⁶⁾

1215년에 나온 『해동고승전』에서 200여명의 화랑가운데 사선이 가장 어질었다고 언급한⁷⁾ 사선(四仙)의 이름은 영랑, 술랑(述郎), 남랑(南郎 이외에 南石, 南石郎, 南石行 등이 있다), 안상 등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국선(國仙)으로 사선 즉 술랑, 남랑, 영랑, 안상을 언급하고 이들이 국선이었으므로 사선이라 불렀으며 진짜

4) 一然 著, 權相老 譯解, 『三國遺事』卷三 栢栗寺, 東西文化社, 1977, 260쪽

5) 南孝溫, 『秋江先生文集』卷五, 遊金剛山記, 1471년 “三日浦者 新羅時有花郎安祥永郎之徒 遊三日乃罷故名焉…永郎者 新羅四仙之一” 여기에는 영동지역 산신제 기록도 들어 있다. “영동민속에는 매년 3,4,5월중에 날을 가려 무당과 함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음식을 아주 잘 장만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부자는 말 바리에 음식을 싣고 가고 가난한 사람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가서 신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피리불고 북을 치며 비파를 뜯으며 연 삼일을 즐겁게 취하고 배불리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매매를 시작한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그만 물건도 얻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다.”

6) 李仁老, 『破閑集』卷中, “金蘭境有寒松亭 昔四仙所遊 其徒三千各種一株 至今蒼蒼然拂雲 下有茶井”

7) 『海東高僧傳』卷 第一 法雲傳 “二百餘人其中四仙最賢”

신선은 아니라 하였다.⁸⁾ 1530년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영랑호에 대하여 “호수 주위가 30여리로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라 한다.”⁹⁾고 했으며 1631~1632년 사이에 간성군수를 역임한 택당 이식(李植, 1584~1647)은 영랑호 이름이 지어진 유래를 설명하였다.

영랑호, 군 남쪽 오십오 리에 있고 주위는 이십 리다.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데 물가에 굽이 쳐서 돌아오고 굽은 바위는 높은 언덕에 아름답게 놓였다. 또한 물속에도 돌이 외롭게 별처럼 널려 있다. 동쪽 산기슭 한 언덕이 호수 속으로 들어오는데 주위가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햇볕도 새어나가지 못한다. 이곳에는 백여명 사람들이 둘러앉을 수 있다. 옛날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세상이 전하기를 영랑이 놀면서 감상하였던 곳이기에 영랑호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¹⁰⁾

홍만중(1643~1725)의 『해동이적(海東異

蹟)』에는 사선의 이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영랑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신라 때의 사선 곧 술랑(述郎), 남랑(南郎), 영랑(永郎), 안상(安詳)은 모두 영남사람 또는 영동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이 함께 고성에서 노닐면서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곳의 지명을 삼일포라 하였다. 삼일포 남쪽에는 작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 돌로 만든 감실(龕室)이 있다. 봉우리 북쪽 산비탈에 있는 바위 표면에 붉은 글씨로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란 여섯 글자가 쓰여 있다. 이른바 남석행이란 아마도 남랑이 아닌가 한다. 작은 섬에 옛날에는 정자가 없었는데 존무사 박공이 그 위에 정자를 지으니 이것이 곧 사선정이다. 또 군 남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 단혈(丹穴)이 있다. 또 통천에 사선봉이 있는데, 이 모두 사선이 노닐던 곳이다. 또 간성에 선유담과 영랑호가 있고, 금강산에 영랑봉이 있다. 영랑 등 선도가 일찍이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¹¹⁾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영랑호는 큰 못에 구슬을 감춘 것

8) 李●光, 『芝峯類說』卷十八 “新羅時四仙卽述郎南郎永郎安詳…蓋其時謂郎徒爲國仙故云 非其仙也”

9) 『新增東國輿地勝覽』卷四十五, 杆城郡 永郎湖條

10) 李植, 『澤堂先生別稿刊餘』十七 杆城志, “在郡南五十五里 周回二十里 漫入山谷不見端 倪汀回渚 曲岩石錯峙中水 又有孤石如點星 東麓一丘 近湖中松林周回 日光不漏 可列坐百餘人 古有亭今廢 世傳永郎遊賞之地 故以爲名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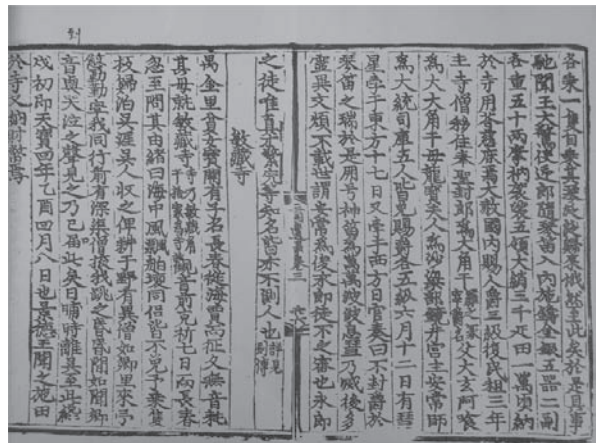
11) 洪萬宗, 『海東異蹟』 “四僊, 新羅時四僊 卽述郎南郎永郎安詳 皆嶺南人 或稱嶺東人 同遊高城 三日不返 故名其地曰 三日浦 浦南有小峯 峯上有石龕 峯之北崖石面 有丹書六字 曰永郎徒南石行 所謂南石行 疑卽南郎也 小島古無亭 存撫使朴公構之 其上 卽四僊亭也 又有穴在郡南一十里 又通川有四僊峯 皆四僊所遊處 又杆城有僊遊潭 永郎湖 金剛有永郎峯 以永郎僊徒嘗遊於其地 故得名”

과 같고 양양의 청초호는 그림 경대의 거울을 연 것과 같다.”하여¹²⁾ 구슬처럼 빛나는 경관을 지적하였는데, 영랑호는 고려 말 안축의 경기체가「관동별곡」에서 조선시대 송강 정철의 가사「관동별곡」으로 이어질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관동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영랑호의 유래를『국립공원 설악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영랑호는 속초시의 북쪽에 위치한 매우 아담하고 조용한 호수이다. 주위 사방의 둘레가 약 12킬로나 되고 넓이는 1.241km² 이나 되는 호수이므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봄, 여름 동안 놀이를 자주 연다. 이 영랑호의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신라시대에 화랑이었던 영랑이 동료인 술랑·안상·남석 등이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각 헤어져 신라 서울 금성을 향하였다. 그러나 유독 영랑만은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 즐기고 고기를 낚고 풍류의 멋을 다 하였다. 그런 후 사람들이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때 놀던 내금강, 즉 회양군에 있는 한 봉우리를 지금도 영랑봉(1601m)이라 한다. 그러므로 영랑호의 설화는 신빙성이 있는 구비(口碑)에서 전해진 설화이다. 넓고 넓은 호숫가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어디에서 보아도 끝을 볼 수 없는 것이 이 호수의 특징이다) 호수면을 바라보면 무아지경(無我之境)에

이른다. 호수 주위는 낮은 숲과 바위들이 있어 영랑호의 풍경을 한층 빛내고 있다. 각종 어족들이 풍부하여 낚시터로 유명하다. 요즘 낚시의 레저를 즐기는 태공들이 호반을 메우고 있다. 이 영랑호에는 고기자원이 풍부하여 대어급 잉어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 더욱 특수한 미각을 가지고 있는 감성돔도 새우를 미끼로 하면 잘 낚을 수가 있다. 피서를 즐기고 대어 낚을 꿈을 키우는 영랑호의 석양 노을은 한결 이름이 높다.¹³⁾

영랑호는 “자그마한 산들로 둘러막힌 호수로서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영랑이라는 신선이 여기서 놀았으므로 영랑호라고 부른다고 한다. 호수의 둘레는 십리쯤 되는데 기슭에는



흰 모래가 깔려 정갈한 호숫물과 잘 어울리며 이것이 또한 이채를 띤다.”¹⁴⁾ 고도 소개하였다.

12) 李重煥 『譯里志』卷四, 山水, 山水勝地 “永郎湖 如珠藏大澤 襄陽青草湖 如鏡開畫”

13) 黃●根 『國立公園 雪嶽山』通文館, 1973, 177~178쪽

14) 리용준·오희복 역, 『금강산 한시집』 문예출판사, 1989, 300쪽

3. 영랑호 제영시 작가와 서정성

옥 같은 골이 아름다운 섬을 품었네
玉洞藏瓊洲

1) 고려시대 영랑호 제영시 양상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 배를 대니
循山泊松下

(1) 안축(安軸, 1282~1348)

푸른 초목 서늘한 가을 기운 도네
空翠涼生秋

영랑포범주(永郎浦泛舟:영랑호에 배 띄우고)

연잎 정갈하다 물에다가 씻었는가
荷葉淨如洗

잔잔한 호수는 거울 같이 맑은데
平湖鏡面澄

풀빛 짙은 순채나물 연하고 보드랍네
蓴絲滑且柔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滄波凝不流

저물녘 뱃머리 돌려 돌아가려하니
向晚欲迴棹

아름다운 배 가는데로 놓아두니
蘭舟縱所如

눈앞 펼친 경치 천고의 시름인 듯
風烟千古愁

넘실넘실 가볍게 갈매기 따라오네
泛泛隨輕鷗

옛날 그 신선들을 만날 수 있다면
古仙若可作

가슴 후련하게 맑은 정취 일어나서
浩然發清興

여기서 그들 따라 싫도록 놀고가리
於此從之遊¹⁵⁾

거슬러 올라가니 깊고도 그윽해라
溯回入深幽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고 있고
丹崖抱蒼石

15)安吉濬 編輯, 『謹齋全集』(上下卷), 謹齋思想研究會, 1994, 89~90쪽 참조

鄭愚相 外 翻譯, 『謹齋先生文集』(全), 順興安氏三派大宗會, 2004, 80~81쪽 참조

최재도, 「영랑포범주를 번역하며」, 『영랑호와 근재안축』 문화연구회 풀뭍음, 1999, 40~51쪽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갈매기도 배를 따라 동실 떠 날아오네. 마음 가득 맑은 흥취 일어나기에, 물결 거슬러 깊은 골로 들어서네. 붉은 벼랑이 푸른 바위를 안고 있어, 아름다운 골이 고운 섬을 품은 것 같네.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 배를 대니, 울창한 숲 그늘이 가을인양 서늘하네. 연잎은 씻은 듯 깨끗하고, 순채줄기는 매끄럽고도 부드러운. 해 저물어 뱃머리 돌려려 하니, 흐릿한 기운 오랜 시름 자아내네. 그 옛날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그를 따라 여기서 놀련마는.” 이 시를 번역한 속초출신 최재도 극작가의 큰 도움으로 당시 번역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차체에 감사를 표하며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북행범영랑호

(北行泛永郎湖:북행하다가 영랑호에 배 띄우고)

저문 구름 반 걷히니 산은 한 폭 그림이고

暮雲半卷山如畫

가을비 새로 개이니 물결 절로 일렁이네

秋雨新晴水自波

이곳에 다시 오기를 약속하기는 어려우니

此地重來難必

배 띄워놓고 한 곡조 노래를 다시 들노라

更聞虹上一聲歌

안축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금주사록, 사헌규정, 단양부주부를 거쳐, 1324년(충숙왕 11) 원나라 제과에 급제하여 요양로개주판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고려로 돌아와서 성균약정, 우사의대부를 거쳐 충혜왕 때 강릉도안렴사로 파견되어 이때「관동와주(關東瓦注)」를 지었고, 양양에 학교를 세우고「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를 남겼으며 문집으로 『근재집』이 있다.

충숙왕 17년(1330) 관동팔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경기체가「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의 것보다 250년이나 앞섰다. 안축의 가사 제5장이

영랑호를 노래한 것으로 “선유담, 영랑호, 정신 맑아지는 골짜기에, 푸른 연 잎사귀 물 위에 띄어놓은 듯 한 아름다운 작은 섬, 푸른 옥돌 괴어 만든 병풍같이 길게 연한 산, 아름다운 풍경 십리에 뻗쳐, 향기 은은히, 안개 부슬 부슬, 유리 같은 수면, 아 배 띄우고 노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순채국 농어회, 은실 같은 나물, 눈 같은 고기, 아, 양젖은 어떻게 말씀하리까”(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綠荷洲 靑瑤嶂 風烟十里 香苳 翠翠 琉璃水面 爲 泛舟 景幾何如 蓴羹鱸膾 銀絲雪樓 爲 羊酪 豈勿參爲里古)라고 하였다. 안축은 충렬·충선·충숙 3조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공정무사하고 근검으로써 집을 다스렸다고 한다.¹⁶⁾ 안축의 문집『근재선생문집』제1권에 수록된「영랑포범주」는 영랑호를 읊은 시 가운데 최초이자 단연 백미라 하겠다. 속초시 영랑호변 공원에는 지난 1999년 7월 10일 속초시, 속초지역 문화연구회 풀묵음이 주도하고 순흥안씨 종친회가 합심하여 안축 선생 시 가운데 「영랑포범주」를 검은 옥돌에 새겨서 세웠다. 근재 선생의 영랑호관련 시문은 근재사상연구회, 안상윤, 최재도 등에 의해 몇 가지 번역본이 나왔다.¹⁷⁾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꽃배타고 갈매기 따라가니, 호수는 깊고 그윽하다. 물새 따라 솔숲에 배를 대고 맑은 하늘을 본다. 그리고 영랑

16) 李民樹 編譯, 『高麗人物列傳』, 瑞文堂, 1976, 143쪽

17) 최용문, 「속초 영랑호반에 세워진 근재선생의 시비」, 『속초문화』 제15호, 속초문화원, 1999, 76~78쪽
최재도, 「영랑호와 근재 안축 -영랑포 범주를 번역하며」, 문화연구회 풀묵음 회보, 1999, 7, 10, 40~51쪽
「순흥안씨 제3파 중보」 제18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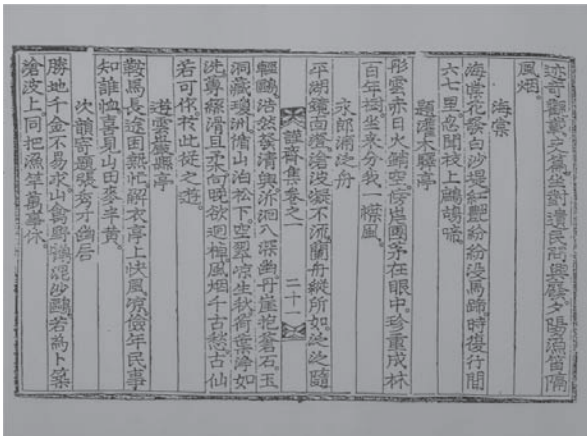
호를 들여다보니 연잎은 씻은 듯 정갈하고 순채나물은 더없이 부드럽다. 날 저물어 돌아가기 아쉬워 걱정인데 만일 영랑신선을 만난다면 그를 따라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시편에 담겼다. 두 편 모두 가을 영랑호의 서정성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오니 잠시 고단한 벼슬길도 잊어버린 채 배를 띄워 한 곡조의 노래를 읊어본 것이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은 『관동와주집서(關東瓦注集序)』에서 “그가 풍월을 읊고 물상을 그려낸 것은 참으로 옛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감동하고 분개하며 지은 것이 풍속의 바른 것과 그른 것,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관계되는 것이 열에 아홉이니 그것을 읽으면 사람을 슬프게 한다.”고 평하였다.

(2) 이곡(李穀, 1298~1351)

영랑포(永郎浦)

안상의 심회는 달밤의 학이라면은
 安詳情懷黃鶴月
 나의 행색은 물결 위에 흰 갈매기
 李生行止白鷗波
 이 고장 다시 올 날 기약키 어려워
 重來此地誠難必
 관동의 노래 한곡 부질없이 듣노라
 空聽關東一曲歌

이곡의 호는 가정(稼亭), 자는 중부(仲父)이며 본관은 한산, 시효는 문효(文孝)이다. 어렸을 때부터 행동하는 것이 범인을 벗어났으며 자라나서 글 읽기를 부지런히 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효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 충숙왕 4년에 거자과(舉子科)에 합격하였으며, 경사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이 크게 경진하니 학자들이 그의 학설에 많이 따랐다. 중국 문사들과 사귀었으며 원나라에 가서도 벼슬을 했다. 이제현 등과 더불어 편년강목을 증보하고 충렬·충선·충숙 삼조실록을 편찬했다. 성품이 단정엄중하고 강직하여 사람들이 모두 공경했다.¹⁸⁾ 이제현의 문인(門人)이자 이색(李穡)의 부친인 이곡은 가정체(假傳體) 의인소설「죽부인전(竹夫人傳)」, 「동유기」 등의 글이 있으며 문집으로 『가정집』 20권이 있다. 이곡은 벼슬이 떨어졌을 때 양양 태평루, 관란정(觀瀾亭)



18) 李民樹 編譯, 『高麗人物列傳』, 瑞文堂, 1976, 132쪽

에 올라 시를 지었으며, 영랑호에 들러서 옛 네 명의 신선 중 한 명이었던 안상을 거론하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2) 조선시대 영랑호 제영시 양상

(1) 홍유손(洪裕孫, 1431~1529)

단군 나신 무진년보다 먼저 태어나
 生先檀帝戊辰歲
 기왕이 마한이라 부르던 것 보았네
 眼及箕王號馬韓
 일찍이 영랑과 물가에서 노닐었는데
 曾與永郎遊水府
 또 봄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문다
 又牽春酒滯人間

이 시는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의 『해동이적(海東異蹟)』에 실린 것으로 그 유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篠叢) 홍유손은 세조때 사람으로 은둔 군자였다. 세상일을 가볍게 보고 고답하면서 영리를 꾀하지 아니하였다. 남추강(南孝溫:秋江의 그의 호)은 늘 이렇게 칭찬하였다. ‘글은 칠원(漆園:莊子)과 같고 시는 산곡(山谷:중국 송나라 시인 황정견의 호)을 두루 섭렵하였

다.’…그는 김시습과 함께 산수 간을 방랑하였는데 일찍이 추강이 금강산을 유람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보다 먼저 금강산에 놀러 가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절벽위에다 시를 썼다. 시를 다 쓴 다음에 그가 올라갔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뿌리까지 뽑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추강이 뒤에 도착하여 그 시를 발견하였으나, 쳐다보기만 하였지 기어 올라갈 수 없었다. 추강은 매우 이상히 여기면서 비선(飛仙)이 쓴 시라고 여기었다.¹⁹⁾

김풍기는 이 시를 평가하기를 “영랑은 신라시대 사선(四仙) 중 한 사람이다. 이들은 금강산에서 노닐었으며, 삼일포에서 하루 머물러 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흘이나 머물렀다는 설화를 만든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족적이 설악산에도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의 작품이 지어졌다. 그렇게 영랑과 노닐었다는 말 속에는 자신이 신선의 신분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다. 오랜 세월 신선과 노닐다가, 이즈막에 봄 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설악산이다.”라고 하였다.

홍유손은 방외인적, 도선적(道仙的) 기질을 지녀 겉으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 불교의 허무사상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로²⁰⁾ 재주는 제갈공명같고, 행동은 만천(曼淸:동방

19) 洪萬宗 著, 李錫浩 譯, 『海東異蹟』, 乙酉文化社, 1982, 98~100쪽
 20) 南孝溫 著, 李錫浩 譯, 『秋江冷話』, 三省美術文化財團, 1981, 15쪽

삭)과 같다고 남효온은『사우명행록(師友明行錄)』에서 언급했다. 홍유손은 설악산 바위에 이 시를 써놓고 남효온을 기다렸는데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세상을 관조하였다. 1556년부터 1557년 사이 임보신(任輔臣)이 지은『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추강 남효온의 금강산에 노닌 기록에 이르기 “설악령 위 돌 사이에, 팔 분으로 쓴 절구 한 수가 전하네, 단군나신 무진년보다 먼저 태어나, 기왕(箕王)이 마한이라 부르던 것을 보았네. 일찍이 영랑과 물가에서 노닐었는데, 또 봄 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물렀구나”하였다. 먹 자국이 아직 새로운 걸 보니 반드시 쓴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리라. 세상에 선인(仙人)이 없으니, 이 어찌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의 거짓 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자(程子)는 국운이 영명(永名)하기를 하늘에 빌고, 평범한 사람이 성인에 이르는 것을 수련에 따라 장수하는 것에 비유했으니 깊은 산, 큰 못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시를 읊으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을 벗어난 느낌을 가지게 한다. 공의 친구 여경 홍유손은 추강이 영동에 놀러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이 시를 써놓고 그를 기다렸으니 흥여경도 세속을 벗어난 선비로 일찍이 청한자(淸寒子, 김시습의 호)를 따라 놀았고 시문을 짓되 옛 사람에 따르지 않았다.

이 내용은 권별(權鬮)이 1670년경에 지은『해동잡록(海東雜錄)』에도「설악영상석간유팔분서일절(雪岳嶺上石間有八分書一節): 설악산 돌 사이에 팔분 서체의 시」이라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홍유손은 조선전기의 학자로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길에 나가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본관은 남양, 자는 여경(餘慶), 호는 소총(篠叢), 광진자(狂眞子)이다. 남효온, 이충, 이정은, 조자지, 김시습, 김수온 등과 죽림칠현을 자처하였으며 이들을 청담파(淸談派)라고도 부른다.

(2) 이몽규(李夢奎, 1510~1563)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 영랑호를 읊다)

무연히 펼친 호수 거울같이 새맑은데
平湖淨色明如鏡
구름건힌 봉우리들 병풍처럼 둘러있네
雪岳晴峰擁作屏
신선들의 피리소리 천년토록 소식없어
笙鶴千年消息斷
조각달은 부질없이 푸른 바다 비취주네
空留片月照滄溟

이몽규는 조선전기의 시인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 창서(昌瑞), 호는 노재(魯齋) 천휴당(天休堂), 청천당(淸天堂) 등이다. 조부는 이조참판에 추증된 이성무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에 추증된 통훈대부 이인신이다. 어머니는 광주

빈씨로 절도사 반희의 딸이다. 1540년 경자식년 사마시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곧 나와서 처가 별장이 있는 보령으로 이주하였다. 그곳 서실을 천휴(天休)라 명하고 전원에 묻혀 독서와 시작에 전념하였다. 조선시대 은사(隱士)로서 영랑호를 찾아 한 편의 시를 남겼다. 이 시는 거울같이 맑은 영랑호와 병풍처럼 둘러싼 봉우리, 그리고 옛 영랑 화랑의 피리소리가 천년동안 들리지 않는 초저녁 하늘에 걸린 조각달이 호수와 이어진 푸른바다를 비추는 고요한 침잠의 서정을 영출하였다.

(3) 구사맹(具思孟, 1531~1604)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영랑호를 읊다)

백경이나 맑은 호수 거울처럼 고요한데

百頃清湖鏡平面

조각배에 흥취 싣고서 달밤 뱃놀이 하네

扁舟載興泛空明

당시 놀았던 그런 자취 사라지고 없건만

當時只擬遊踪秘

어찌 구구히 영랑호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饒舌何人強揭名

구사맹의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 시호는 문의(文懿) 본관은 능성이다. 부친은 영의정 순(淳)이며 셋째 딸이 인현왕후이다. 유희춘, 이항의 문인(門人)으로 명종 13년

(1558) 식년문과에 급제 승문원정자, 정언 등을 거쳐 1563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조좌랑, 황해도관찰사, 동부승지,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동지사로 다시 명나라에 갔다. 임진왜란에 왕자를 호종하여 의주로 갔고, 정유재란 때는 성천으로 피난했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능안부원군에 추봉되었다. 문집으로 『팔곡집』이 있다. 이 시는 넓고 고요한 영랑호에서 달밤 뱃놀이를 하는 정경이 그려진다. 신라 영랑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4) 허균(許筠, 1569~1618)

유증무산장옥랑

(留贈巫山張玉娘:무산의 장옥랑과 작별하며 짓다)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꽃다운데

天吼山前草正芳

영랑호 호숫가에 지는 꽃 향기롭네

永郎湖畔落花香

그림배에 봄 가득 싣고서 돌아가니

畫舫載得春歸去

옥통소 드높아 제향을 향하는구나

吹徹鸞簫向帝鄉

허균은 너무도 유명한 조선중기 작가이자 정치가이다. 아버지는 경상감사를 역임한 초당 허엽이며 어머니는 예조참판을 역임한 애일당

김광철의 딸이다.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짓기도 하는 등 탁월한 문학 적 재능과 외교력을 보였다.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성옹(惺翁), 촉재주인 등이 있으며 본관은 양천이다. 21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이래 26세에 정시을과, 29세에 증시 장 원하고 30세에 벼슬길에 올라 병조좌랑을 거쳐 황해도사가 되었다. 삼척부사, 수안군수, 공주목사,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불 교, 도교, 천주학 등에 심취하여 반대파의 공격과 중상 등으로 여섯 차례 파직, 세 차례 유 배를 갔으며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나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아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만권 책을 중국에서 들여와 호서장서각을 지었으며, 또한 많은 문집을 엮었는데 누이 『난설현집』, 형인 허봉의 『하곡집』 등을 냈으며, 문집으로 『성소부부고』가 있다. 『조선시선』 등 여러 시문집을 편찬하여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시는 허균의 『교산억기시(蛟山臆記詩)』¹¹ 번째로 들어 있는데²¹⁾ 천후산인 울산바위와 영랑호가 시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영랑호 호숫가에 봄꽃은 지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한 화강(畫缸 또는 畫舫이라 함)에 봄한 가득 싣고 통소소리 들으면서, 신선세계를 영적 세계로 그리고 있다. 옛 선비들은 강릉 경포호에 ‘경포화방’(鏡浦畫舫)이라 하여 그림

배를 띄우고 신선처럼 놀았는데,²²⁾ 속초의 영랑호에도 ‘영랑화강’(永郎畫舫)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질(李尙質, 1597~1635)

관영랑호(觀永郎湖:영랑호를 구경하며)

구름어린 하늘가에 신선 옷 부탁하고
 羽衣初繡白雲邊
 필마로 달려오니 생각이 아득도 해라
 匹馬東來意渺然
 백사장 해가 저무니 호수물 아득한데
 日落沙明湖水闊
 나 몰라라 신선소식 어디에 물어볼까
 不知何處問神仙

이상질은 조선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전주, 자는 자문(子文), 호는 가주(家洲)다. 아버지는 이조판서에 증직된 이진이며 어머니는 함안이 씨로 생원 이성의 딸이다. 권필의 문인으로 광해군 8년(1616) 진사시에 합격하고 광해군의 실정에 세상을 버리고 강원도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성균관에 입학하고 1629년 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고, 이듬해 정언, 병조좌랑을 거쳐 옥당에 들어가 부수찬겸지제교를 역임하였다. 1632년

21) 장정룡, 『허씨오문장가 한시국역집 -허균의 생애와 한시』강릉시, 2000, 498쪽
 22) 장정룡, 『강릉경포호 전설』 『경포대와 경포호의 문화산책』새미, 2009, 16쪽

홍문관부교리, 이듬해에 헌납, 성균관직강을 역임하고 암행어사로 북관에 갔으며 1634년 종성에 유배되고 돌아오다가 회양에서 사망했다. 문집으로 『가주집』 5권이 있다. 이 시는 영랑화랑의 이야기를 빗대어 영출하였다. 해질 무렵 흰구름은 신선의 옷과 같이 아름다운데 홀로 당도하니 생각이 묘연하다고 노래했다.

(6) 이세구(李世龜, 1646~1700)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영랑호를 읊다)

길그친 솔숲 빠져나가니 동편 모래기슭

行盡長松沙岸東

맑고 시원하면서도 바람조차 잔잔해라

澄清瀟灑更無風

한 구비 맑은 호수 한 폭의 그림인가

明湖一曲眞如畫

설악의 천봉이 거울 속 잠긴 것 같아라

雪岳千峰倒鏡中

금강산 만이천봉 두루두루 돌아보고

歷遍金剛萬二岫

해당화 핀 십리길 흰 모래 밟았노라

海棠十里踏鳴沙

영랑호의 호숫가에 눈길을 돌리고서

永郎湖畔初開眼

손가락 술동이 치며 호호가 노래하네

手拍瓊壺浩浩歌

이세구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 수옹(壽翁) 호는 양와(養窩)이다. 이항복의 증손자이며 목사 이시현의 아들이다. 1673년 식년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숙종11년(1685) 음보(蔭補)로 경양도 찰방을 지냈으나 사직하였다. 그 뒤 예산현감, 서연관, 상의원첨정, 홍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경학, 예설, 역사 등에 두루 통하고 가례를 독자적으로 주석하였다. 역사에 밝아 한사군과 삼한의 위치를 논증하였으며, 박세채, 윤증, 남구만, 최석정 등 소론에 속한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 아들 광좌(光佐)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홍주 혜학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는 『양화집』 13책이 있다. 영랑호를 읊은 이 시를 보면 첫째 수는 영랑호 옆 동쪽 솔밭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이 새롭다. 호수는 한 폭 그림 같은데 설악이 물속 그림자로 담겨있다. 둘째 수는 금강산을 돌아보고 동해안 명사십리를 밟고 영랑호에 당도하니 마음도 편하다. 벗들과 술동이를 치면서 노래하고 술마시는 정경이 여유롭다.

(7)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영랑호제영(永郎湖題詠:영랑호를 읊다)

병풍산 둘러싸여도 바닷길은 열렸으니

屏張萬岫海開門

모래언덕 누대에는 묘한 이치가 있네

沙阜成臺衆妙存

한나라 장수 돌아갈 때 사흘 울었다는
 漢將廻時三日哭
 지금도 전하는 기록이 오히려 남았네
 至今猶記契玄言

김창흡은 조선 중기 유학자로 본관은 안동,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속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로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안정나씨로 나성두의 딸이다. 형들은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 있다. 15세에 이단상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1671년 천태부를 읽다가 갑자기 산수의 흥취가 일어 금강산의 모든 경관을 두르 관람하고 돌아오기도 했다.²³⁾ 현종 14년(1673)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멀리하고 주로 설악산 등 산수에 노닐었다. 1681년 김석주의 천거로 장악원주보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89년 기사환국때 부친이 사사되자 영평에 은거하였다. 장자와 사마천의 사기를 좋아하고, 불전을 탐독하였으며 주자의 글을 읽고 유학에 전심하였다. 1696년에 서연관에 뽑히고 1721년 집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으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신임 사화로 절도에 유배된 형 김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형 김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인품을 성인, 대현, 군자, 선인, 속인, 소인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강릉 호해정 영당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삼연집』, 『심양일기』 등이 있다. 이 시에서 삼연은 영랑호가 주변 산에 둘러싸였지만 바다와 통하고 누대에 오르니 묘한 이치를 느끼게 한다고 소회를 읊었다.

(8)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영랑호(永郎湖)

바다낀 구름병풍 굽이굽이 기묘한데
 并海雲屏曲曲奇
 저녁노을 비쳐들면 비단필 번뜩이네
 練痕翻動夕陽時
 신선수레 아득한데 올 날은 언제런가
 仙輶漠漠來何日
 안개어린 봄 물결 곳곳에서 의심하네
 烟雨春波到處疑

채제공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영조대의 남인이다. 특히 청남 계열의 지도자로 사도세자의 신원 등 자기 주장을 하고, 정조의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적 인물이다. 본관은 평강,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중추부지사 응일의 아

23) 金道允, 『雪嶽山 永矢菴과 三淵 金昌翁 先生』永嘉文化社, 2005, 52쪽

들이며 오광운, 강박 등에게 글을 배웠다. 1735년 15세 때 향시에 급제한 후 1743년 문과정시를 통해 승문원에 들어갔다. 1748년 영조의 특명으로 탕평책의 제도적 장치인 한림회관에 뽑혀 예문관 사관이 되었으며, 삼척에 유배되기도 했다. 1753년 충청도 암행어사, 이후 부승지, 이천부사, 대사관 등을 역임하고 1758년 도승지가 되었다. 대사헌, 예문관, 홍문관제학 등 언론과 학문의 관직을 수행하고, 경기감사, 계성유수, 안악군수, 함경감사, 한성판윤 등 지역행정직과 병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등 중앙정치와 행정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771년 동지사로 중국을 다녀왔으며 1788년 정조의 특명으로 우의정, 2년후 좌의정으로 승진하여 3년간 정승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고 1793년 영의정에 임명되었고, 그 후로는 수원화성 축성을 담당하였다. 문집으로 『변암집』이 있다. 이 시는 바다와 연결된 호수에는 영랑의 전설이 전해움을 말하고, 봄날 호수 물결 일어나니 신선수레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감회를 노래했다.

(9) 오윤환(吳潤煥, 1872~1946)

유영랑호(遊永郎湖:영랑호에서 노닐다)

영랑도 있고 호수도 그렇게 있으니
 有是永郎有是湖
 좋은 경치 지도에 실림이 마땅하네
 宜將勝槩載輿圖

푸른파도 마음고요 능형 거울열리고
 綠波心靜開菱鏡
 흰 달빛 빛나서 술병을 비추는구나
 皓月光生暎玉壺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으니
 能令遊子詩相和
 언제나 좋은시절 술마시며 즐기네
 每到良辰酒以娛
 바위아래 차끓는 연기 맑음 다하고
 巖下茶煙清欲歎
 유연히 앉아서 뱃노래를 듣고 있네
 悠然坐聽櫂歌呼

유영랑호운

(遊永郎湖韻:영랑호에서 노닐며 시를 쓰다)

좋은 경치 구경함이 어찌 높은 누각이라
 探勝何必上高樓
 바다에 놀며 구경해도 흥취 다하지 않네
 近海游觀興不收
 산 빛은 붉게 물들고 저녁연기 오르나니
 山光凝紫烟其暮
 호수빛 맑은달 품어 또한 가을의 경치네
 湖色含清月亦秋
 팔경을 더함은 동국여지도 아름다움이니
 八景應添輿誌美
 네 명 신선이 나타남은 도가의 사람이라

四仙已著道家流

취한 후에 선방에서 시 짓기가 끝났는데

醉後禪房詩寫訖

다시 한가롭게 나막신 끌고 방주 향하네

更挖閒屐向芳洲

오윤환 선생은 조선조 후기 속초출신의 한 학자로 본관은 해주, 호는 매곡(梅谷), 자는 성빈(聖嬪)이다. 평생을 효행을 실천하고 교육자, 항일운동가로 지냈으며 율곡 이이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1891년부터 1946년까지 55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썼으며 매율(梅律), 해주 오씨 선조 중 훌륭한 분들의 위인전기인 『수양가전(首陽家傳)』 이외에도 『건연침비(巾衍枕秘)』, 『학정산고(鶴亭散稿)』, 『도문수록(道門蒐錄)』 등을 남겼다. 또한 유학자로서 직접 『율곡전서』 27권을 필사하고 서당을 열어 후학들을 지성으로 훈도하며 영동지역 문사(文士)들을 만나는 등 학문적 연찬과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1934년 마을 앞 계곡에 학무정을 직접 짓고 학자들과 교류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²⁴⁾ 속초시에서는 매곡선생 고택 서당을 복원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고 학무정을 수리하였으며, 매곡선생의 유품들을 속초시립박물관 특별전 시설에 전시하고 지역인물을 선양하고 있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영랑호의 문헌기록과 제영시문들을 살폈다. 7백여년 전 안축이 읊은 영랑호 제영시 부터 무려 천여 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칭송함이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속초의 아름다운 풍광을 구성하는 영랑호는 산, 바다와 함께 석호가 가지는 자연생태환경 뿐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다.

이른바 천지수(天地水) 삼원(三元)과 오행의 미학적 평가를 거부할 수 없는 팔경(八景:元景, 始景, 玄景, 靈景, 眞景, 明景, 洞景, 淸景 등 八采之景色)의 영랑호는 거울같이 맑음에 있어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설악과 함께 더욱 그 명성을 높였다. 것처럼 영랑 그 호수 속에는 설악이 그 깊은 신령스런 그림자를 드리우고, 신선 화랑 영랑의 체취가 전해오기에 절승 가운데 절경이다.

호수의 깊은 물속에는 신선다운 신령스러운 기운이 맴돌고 향기로운 꽃들이 호수변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동해의 아침 햇살과 서산 낙조와 달빛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면 환상에 가까운 경치로 채색되는 영랑호는 사시사철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영랑정 누대에 오르니 묘한 정치가 느껴진다는 옛 시인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언제나 영랑호는 고요의 미학과 평정의 감수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서정성은 쉽게 다룰 수 없는 비경의 자태로 숨

24) 장정룡, 『속초시 매곡 오윤환 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속초시, 2003

어있기에 옛 시 한 수 한 수가 차라리 조심스럽다.

영랑호 제영시는 고려시대에 안축, 이곡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많은 문인들에 의해 절창되었다. 즉 홍유손, 이몽규, 구사맹, 허균, 이상질, 이세구, 김창흡, 채제공, 오윤환 등 은사(隱士)부터 재상(宰相)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시를 쓰지 않고 배기지 못했다. 이외에도 전하는 많은 시문이 있으나 잘 알려진 9명의 제영시만 살펴보았다.

주지하듯이 영랑호는 신라 때 사선 중의 한 명인 영랑의 유적지로 그 이름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들이 이곳을 노래하여,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영롱한 서정성과 청초한 정서적 감흥은 여전히 많은 시문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영랑호는 시문의 고향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설악을 품고 있는 영랑호는 산과 바다를 잇는 소통의 공간이자 산과 바다가 쉬어가는 휴식처와 같기에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안식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의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고장 속초시는 이 세 가지를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에이스-속초(Choice-Ace-Sokcho)’다. “우월한 선택”이 가능한 ‘초이스 속초’는 영랑호가 있기에 더 아름답다.

옛 시문에 전하듯이 ‘영랑화강’ (永郎畫缸, 영랑호의 그림배)을 띄워놓고 시문을 읊던 영

랑호는 영롱한 구슬을 품고 있는 듯하며, 사계(四季) 경색지(景色地)인 울산암과 달마봉, 범바위가 물속에 거꾸로 비친 ‘영산도지’ (映山倒地)의 선경(仙景)임을 제영시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黃互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 崔承洵, 太白的 山下, 江原日報社, 1973
- 李民洙 編譯, 高麗人物列傳, 瑞文堂, 1976
- 崔承洵, 太白的 詩文(下), 江原日報社, 1977
- 吳秀鉉 編, 梅谷遺稿(乾坤) 影印本, 景文社, 1980
- 南孝溫 著, 南晚星 譯, 秋江冷話 · 師友名行錄, 三省美術文化財團, 1980
- 洪萬宗 著, 李錫浩 譯, 海東異蹟, 乙酉文化社, 1982
- 高城郡誌, 高城郡, 1986
-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 리용준 · 오희복 역, 금강산 한시집, 문예출판사, 1989
- 杆城郡邑誌(原 水城誌), 고성문화원, 1995
- 장정룡, 허균과 강릉, 강릉시, 1998
- 영랑호와 근재 안축 -안축선생의 시비를 세우며, 문화연구회 풀뭉음, 1999.7.10
- 장정룡 · 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장정룡 · 양언석, 허씨 오문장가 한시국역집, 강릉시, 2000
- 장정룡,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 속초시, 2000
- 장정룡, 속초 영랑호설화의 형상화계획, 속초시, 2000
- 장정룡, 매곡 오윤환 선생선양사업 기본계획, 속초시, 2003
- 鄭愚相 外, 謹齋先生文集(全) 順興安氏三派大宗會, 2004
- 金道允, 雪嶽山 永矢菴과 三淵 金昌翁 先生, 永嘉文化社, 2005
- 장정룡 · 양언석, 국역 매곡유고, 속초시, 2006
-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도 · 강원발전연구원, 2006
- 양언석, 양양의 한시, 양양문화원, 2010



서예를 잘하려면

박종철 (속초서우회 강사)

서예란 손과 머리와 가슴으로 쓰는 예술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법첩을 중요시하며 익히고 그 다음에는 깊이 사고하며 연구하는 등의 단계를 밟는 것이 서예라 할 수 있겠다. 서예의 역사와 본질,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물론, 紙筆墨 등이 물리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이치와 운필, 절구, 장법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가슴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서예의 최종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누구나 서예를 잘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잘 쓰기를 원한다.

서예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爲爲不厭更爲爲

“해도 해도 싫지 않아 다시 하고 또 하고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하고 또 하고” 라는 글귀가 서예를 하는 사람을 위해 나온 글귀 같다.

대개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형편없이 잘못된 글씨를 써서 글씨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때인가 잘 쓰는 단계가 온다. 우리는 아주 잘 된 글씨를 보고 筆歷이 좋다고 표현하곤 하는데, 筆歷이란 오랜 시간 동안 글씨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많이 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옛 선인들의 말에 의하면 깊이 연구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 피로함도 있고 외출을 삼가며 쉬지 않고 해가 기울어도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 열흘이며 붓 한 자루가 닳고 한 달에 몇 개씩이나 먹을 썼으며 옷 소매는 검은 비단 같고 입술 치아는 검었다라고 하니 그들이 서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언제 남들처럼 잘 쓸까 하는 생각은 접어 버리고 운동 선수가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열심히 주다 보면 자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먹기 좋은 콩나물이 된다. 서예도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쓰는 서예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하므로 서예를 배우려면 모든 서법과 서체, 즉, 해서 예서 전서 행초서 등 운필 과정을 확실히 배우고 익힌 뒤,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뜨겁고 열정적이며 글씨에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시회에 나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깊이 감상하면서 특히 훌륭한 작품의 기법을 익히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발전성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인간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수양이 있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서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 배워 나간다면, 반드시 개성 있는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회/원/문/단

또 다른 속초 50년을 예비하자

이수영 (향토사연구소 위원)

오는 2013년은 속초시 승격 50주년이자 수복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04년 市昇格 41주년에 맞춰 '평화관광도시'를 선포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했지만 그 후 '평화'는 사라지고 '관광도시'만 남았다.

여기서 평화관광도시 1번지는 바로 '아바이마을' 일대다.

내년 신수로와 구수로가 이어지면 속초의 남북연결과 남북통일의 의미를 담은 평화통일대교로 명명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수복탑~아바이 마을(갯배 선착장)~속초해수욕장~외옹치 들레(통일 염원길)~대포항(방파제)에 이르는 총 길이 7km를 관광탐방코스인 통일염원길로 조성해 수산시장과 시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자.



바가지 상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면서 갯배 인근의 식당들을 활용해 '아바이' 음식축제를 정례화 하는 것이다. 제철에 맞게 양미리, 콩치, 홍게, 고등어 생선구이와 젓갈, 함흥냉면, 순대 등 먹음직한 음식이 문화축제와 어우러지면 명품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설악문화제와 함께 아바이마을(갯배나루)과 수협냉동창고 인근 공터에서 열린 홍게, 젓갈축제처럼 급조된 행사는 지양하고 통일문화축제와 같이 장시간 세밀한 기획이 뒷받침된 행사여야 상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일문화제는 통일관련 문학 강연회를 지루하지 않게 음악과 함께 하는 소공연으로 기획하고 연극, 통일사진전, 통일문화포럼을 아우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시는 행사 배후지역인 신포마을일대를 특화하는 공공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 신포마을 옛 골목길은 그대로 지키고 관광객 쉼터와 제2 갯배 설치, 아바이마을을 특화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등이 반영된 기본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오는 2014년쯤 청호동으로 옮길 예정인 지금의 수협건물과 어판장에 문화예술인 특화창작촌을 조성하자.

이곳에 집단창작과 수공예, 조각, 음악 등과 관련한 예술인들을 모셔 갯배와 수산시장, 시내를 아우르는 우리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68년 건축된 지금 수협건물이 2010년 건물안전진단검사에서 철거 직전인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화예술인 창작촌은 창작활동,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재교육기능, 예술가의 작품을 생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예술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 의미가 있다. 현장경험과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서가 순화돼 생활문화의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인 창작촌 조성으로 각종 워크숍과 교류활동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진작 효과도 볼 수 있고 관광자원화와 함께 문화예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인 창작촌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개인 및 가족 단위로 작품 감상, 제작과정 견학, 작품 구입, 실습 참여 등이 가능하며 문화 및 생활휴식 공간으로 제공된다.

창작촌 일대에 유정충 선장과 이기섭 박사의 동상을 설치해 우리지역의 문화적 자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자랑하자.



또한 신수로 밑 교각의 컨테이너 등을 정비해 관광객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창출해 문화, 예술, 체육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해결 되는 단지화 조성 말이다.

물론 신포마을 공공디자인사업이 이와 맥을 같이 해 연구용역을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신수로 다리 밑 공터에 규모에 맞는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면 아바 이마을도 살고 관광객 유인효과도 더더욱 클 것이다.

수복탑과 대포항에 이르는 통일염원길 조성 시 해일피해와 해안침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이 해안침식으로 쓸려나가는데 데크(DECK) 조성이 무슨 소용인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50대 이후 세대는 경험했을 것이다. 속초해수욕장의 방파제 인근에 빨간 해당화가 무리지어 피어나는 야트막한 모래언덕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바로 이 해당화 사구(모래언덕)가 백사장 유실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 것이다. 6~70년대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이 얼마나 넓었으면 발바닥이 뜨거워 단박에 입수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기억된다.

영랑동 해안도 옛날에 해당화밭이었다고 어른들이 증언한다. 해안침식은 방파제 축조로 인한 조류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해경관제자에 따르면 옛날부터 속초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유실되면 며칠 뒤 양양 설악해수욕장 인근에서 익사체가 발견된다고 한다.

백사장은 번갈아 불어오는 셋바람, 마파람의 풍향과 이에 따른 파도와 조류의 영향에 의해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며 오랜 세월동안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방파제 등 지장물이 생기면서 그 균형이 깨져 침식만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절국 향후 50년, 100년의 속초미래는 개발만능의 구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에 걸 맞는 사람중심의 문화·예술·체육 구현에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1월

전통공예 작품 전시

속초시립박물관 전통공예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배운 바느질 솜씨와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매듭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양한 장르 사진 공모전

2010년 속초 문화원 제1회 장릉사진 공모전 작품 수상작을 알린다. 금상은 박상형씨의 '속초고등학교 1회 입교식', 은상은 남정이씨의 '1930년대 학무정', 과 원봉숙씨의 '미국공보관과 속초문화관앞에서' 등의 작품이 수상. 동상작은 전창선씨의 '소방서 준공식' 황병진씨의 '메뚜기 잡이' 김숙자씨의 '대포소방대 발대식 기념사진' 이 차지했다.

교동성당 주일 신부 개인 사진전

김현신 신부는 오는 18~24일 속초 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개인전 '고,요,전'을 연다. 김 신부가 사목활동을 하며 지나쳤던 기억들과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찾았던 지구촌 곳곳의 풍경, 교우들의 얼굴, 마음을 움직이는 자연의 아름다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YG오디션

YG엔터테인먼트가 29일 정오 속초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 현장 오디션을 진행한다. YG는 이달 1일부터 대전, 대구, 광주, 속초, 부산, 서울로 이어지는 6개 지역 공개 오디션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인내로 얻은 속초의 금석문

속초문화원이 중요한 향토 사료인 금석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석문의 소재지 및 내용 등을 기록한 <속초의 금석문>을 발간했다. <속초의 금석문>에는 비석 및 기념탑 등이 사진과 해설로 구성된 '금석문 화보'를 비롯해 금석문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금석문의 이해', 지역의 금석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곁들여진 '설악산의 금석문', '관내의 금석문' 등이 실렸다.

되돌아본 속초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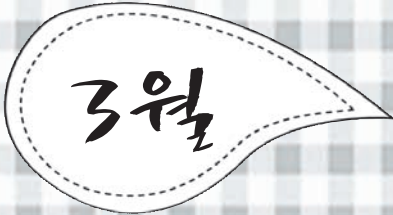
속초문화원의 한해 활동과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 문화를 점검하는 '속초문화' 제26호가 발간됐다. 권두에 김춘만 속초문인협회장의 시 '속초, 그리고 춤추라'와 박학성·김만두씨의 회화를 비롯해 문화원의 활동을 사진으로 되돌아보는 '속초문화365', 설악신문의 후원으로 진행된 2010 장릉사진공모전 결과가 함께 실렸다.

고 박완서 작가를 만나다

속초도서관이 지난 22일 작고한 고 박완서 작가의 추모 전시회를 마련했다. 속초도서관은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종합자료실 한 편에 고 박완서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모은 특별 코너를 마련, 추모 전시회를 열고 있다.

속초예총 회장 이취임식

지난 4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최지순 도 예총회장, 조용건 부시장, 김강수 속초시의회 의장,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 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함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총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향토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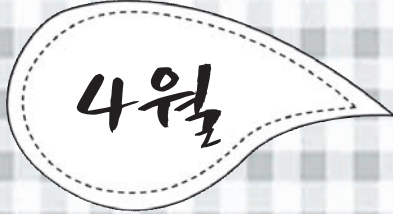
지난 8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노광복 원장과 수강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문화학교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향토문화학교는 △노래 △서예 △민요 △한지공예 △사물놀이 중급 △장구 △고전무용 등 7개 강좌가 마련돼, 모두 100명이 수강. 11월까지 진행된다.

속초와 중국 고당현간 국제문화교류

9일 중국 고당현 후임강 부현감 등 서법회원 6명을 초청, 양국 서예인들의 우호를 다졌다. 서법회는 속초시장과 면담을 가진 후, 속초서우회 작업실을 찾아 번영을 기원하는 휘호작품을 전달하고, 서우회 작품을 관람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극단 굴림쇠 '스트립-티즈' 무대에 올린다

5월 8~16일 춘천에서 열리는 제28회 강원연극제에 '스트립-티즈 (Strip-Tease)' (스와보미르 므로제크 작, 정성훈 연출)를 무대에 올린다. '스트립-티즈'는 폴란드 극작가의 작품으로, 갑자기 알 수 없는 공간에 떨어진 두 남자를 통해, 권력 앞에 쉽게 무릎 꿇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코믹하게 다뤘다.



자전적소설 '날아라 곱새기야'

<설악신문>에 '이반 칼럼'을 연재했던 이반 전 송실대 교수(극작가, 속초예총 회장)가 장편소설 '날아라 곱새기야'를 연재한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1970년대말까지며, 공간은 작가의 고향인 함경도에서 속초, 서울 등 국내는 물론 멀리 영국과 북유럽 핀란드까지 매우 넓다.

고 유정충 선장 다류 만든다

속초문화원이 영웅 '고 유정충 선장 문화제'를 기획한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고 유정충 선장의 일대기를 다룬 다류멘터리 제작과 난타공연이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인물을 문화로 형상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상 수상 청봉 '배따라기'

극단 청봉이 강원연극제에서 공연한 '배따라기' 강원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청봉은 8~16일 춘천에서 열린 제28회 강원연극제에서 창작 초연작 '배따라기' (강석현 작, 김일태 연출)를 선보여, 2007년 재창단한 이후 강원연극제에서는 최고 성적의 거뒀다.

5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속초시가 속초북청사자놀음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은 1950년대 속초에 정착했던 실향민들에 의해 남한에서는 처음 전승이 시작됐고, 인간문화재 고 김수석씨 등에 의해 반세기 가까이 속초에서 시연되어 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도(圖)시(詩)락(樂)'

민예총 속초지부가 가족의 달을 맞아 14~22일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로 꾸며진다. 가족단위 방문객이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족 체험행사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며 온 가족이 봄 소풍에 나서 문화와 예술이 가득 담긴 꿈의 도시락을 연다는 의미를 담아 '도(圖)시(詩)락(樂)'으로 정했다.

전통 공예 강좌 개강

속초시립박물관 전통 규방공예 및 매듭공예 강좌가 지난달 30일 개강했다. 전통문화 보급과 지역의 전통문화 강사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박물관 전통공예 강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5주씩 운영된다.

문화바우처

속초시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영화나 공연 관람, 도서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한다. 속초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 문화 소외계층 1,800세대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마다 5만원이 적립된 체크카드 형식의 문화카드가 지급된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속초시의 '2011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갯마당을 비롯해 7개 단체가 선정됐다.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1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단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배따라기'가 무대에 오른다.

제22회 속초종합예술제 연극 공연으로 27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극단 청봉의 '배따라기'가 무대에 오른다. '배따라기'는 올해 강원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속초종합예술제 18일 개막

속초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속초종합예술제가 18일 개막한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6시 문화회관에서 지역 예술인과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종합예술제는 18~24일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미술협회 속초지부의 제36회 회원 작품전으로 시작한다.

'춤, 소리로의 초대'

제22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증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6월 4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악협회의 '춤, 소리로의 초대'가 예술제의 흥을 돋운다. 국악협회의 정기 연주회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농악분과, 무용분과, 기악분과 등 3개 분과 회원들이 출연한다.

4가지 색깔로 속초를 말하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봉사진동우회 김철기·박동수·박병욱·양양수씨 4명의 젊은 사진동호인들이 속초를 주제로 4인4색의 이색 전시회를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전시 된다.

6월

러시아 민속예술단 드보르체스트보

제22회 종합예술제에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청소년들이 문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는 11일 오후 5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설악 청소년 무용제 및 러시아 민속예술단 조인트 공연을 연다.

환경을 주제로 한 사진전

전태극·박동수·박경심·이영숙씨는 11일부터 15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속초, 그리고 우리의 호수'를 주제로 녹색성장도시를 위한 환경사진 기획전을 연다. 우리 고장 호수의 비경을 즐기고 아끼는 일이 녹색성장도시의 시작이라 한다.

한여름의 속초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향토문화 교육과 독특한 전통문화체험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며 올해 관람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7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주간 오후 10시까지 박물관을 열어 북청사자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공연 및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도청소년연극제 13일 개막

성년을 맞은 강원도청소년연극제가 13일부터 17일까지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제20회 강원도청소년연극제는 도내 8개 고등학교가 참가, 8월 10~20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청소년연극제의 출전권을 두고 경연을 펼친다.

“8월에 설악영화제 개최”

올 여름 속초 청초호유원지에서 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설악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50년의 역사, 설악을 말한다.'를 주제로 설악영화제가 8월 5~7일 청초호유원지 및 설악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속초여고 연극동아리

속초여고 연극동아리 '누에고치'가 제20회 강원도청소년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국 청소년 연극제로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강원도청소년연극제는 1991년 첫 개막 때부터 매년 속초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청소년연극제 출범(1997년)의 롤모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지역사회 문화예술 워크숍

속초문화원은 오는 16일 오후 1~6시까지 속초시립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교육기관 실무자, 예술 강사, 문화매개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속초시립합창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속초시립합창단이 시립합창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한다. 시립합창단은 음악대향연, 설악문화제 등 각종 행사장을 비롯해 로데오거리, 중앙재래시장, 군부대, 요양원 등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다.

환경사진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포럼'이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속초해변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사진전 및 재활용쓰레기 작품전을 연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2011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11~14일 청초호유원지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음악 축제인 음악대향연은 우리 고장을 찾은 피서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음악의 열기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로 초대

7월 26부터 8월 21일까지 박물관 1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곤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전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를 마련했다.

8월

속초 음악축제 열기에 파문히

2011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이 지난 11~14일까지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여름음악축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한 2011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이 지난 14일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코믹연극 1천원에

극단 '좋은사람'은 9월 관객의 날(24일)을 맞아 속초문화회관에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6시 3회에 걸쳐 레이쿠니작 <달링>을 무대에 올린다. 예술 친화적 가족 여가문화를 위해 연극·뮤지컬·음악·무용·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

'박수칠 때 떠나라' 공연

'소울시어터'는 9월 16~17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데뷔작 '박수칠 때 떠나라'(장진 작)를 오후 4시와 7시 총 4차례 공연한다. 홍보예산을 줄여 작품의 질을 높이고, 모든 공연을 유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어르신과의 소중한 추억

속초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진동호회 속초사진&문화연구회(회장 김홍수)가 대포동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사비를 들여 액자까지 제작해줘 고마움을 사고 있다.

속초 시간여행

속초문화원이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은 지난 4월부터 놀토를 활용하여 속초고 2학년생들로 구성된 향토사동아리와 함께 '속초의 근현대사 시간여행, 영금정에서 수복탑까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악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갯마당(대표 임희영)이 '국악 놀이터'를 1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운영한다. 국악 놀이터는 지난달 31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 공연을 가졌으며, 9월 7일과 21일, 10월 5일·19일·26일, 11월 2일 등 앞으로 6차례의 공연을 더 열게 된다. 기존 풍물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더해, 무대에 올라 '농심대(단심대) 놀이'를 즐기는 관객 참여 공연이다.

코믹연극 '달링' 매진

대학로 최고의 코믹연극 <달링>의 속초 공연 9월 '관객의 날' 예매좌석이 모두 매진됐다. 이에 극단 '좋은사람'들은 잔여석에 대해 1만원에 공연 관람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9월 24일 속초문화회관에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6시 3회에 걸쳐 <달링>을 무대에 올린다.

갯마당과 강원소리진흥회 합동공연

2일 저녁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속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과 강원외의 소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강원소리진흥회'의 합동 공연 '우리 음악으로 하나 되어'가 펼쳐졌다.

통일문화제 1일 개막

통일문화제가 10월 1일과 8일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과 문화회관 소강당 등지에서 펼쳐진다. 제14회 통일문화제는 '견우가 직녀에게...우리는 만나야 한다'를 주제로 문학과 음악이 함께 하는 특별 공연과 남북한 통일을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견을 나누는 통일문화포럼으로 나뉘어 열린다.

도민속예술축제 첫선

속초북청사자놀음이 28~29일 정선에서 열리는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한다. 실향민문화인 속초북청사자놀음을 널리 알리는 것에 더해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거치는 절차이며 출전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

토요 아뜰리에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속초시립박물관이 8일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하반기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를 운영한다.

실버 문화프로듀서 양성사업

실버 문화프로듀서는 60~70대 노인들이 사진 강좌를 수강하고 직접 사진을 촬영해, '포토자서전', '포토스토리' 등의 문화콘텐츠를 제작, 노인들 스스로 문화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

사랑이 담긴 노래

인터넷 카페 ‘속초친구만들기’ 합창단 창단이 노래를 통해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노래를 선물하기 위해 창단 되었다.

비치누드사진 촬영회

23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김용한)는 오전6시부터 속초 해변 일대에서 ‘2011 속초 비치누드 전국 촬영회’를 연다. 일반인도 참여 가능 하다.

코믹 가족오페라 공연

속초 출신 손문숙 단장이 이끄는 강원예술단은 29일 오후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시민과 설악의 단풍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무료 공연 ‘잔니 스키키’를 선보인다.

장릉 속 옛 사진

속초문화원이 근·현대(1890~1989) 속초의 동네 풍경과 생활모습이 담긴 ‘장릉사진’을 공모한다.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 수집’을 위해 진행되는 공모전은 10일부터 작품 접수에 들어가 11월 4일까지 한 달여간 계속된다.

수채화도 시민과

11월 3~7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네 번째 작품전 ‘속초시민과 함께 하는 수채화전’을 연다. 설악권의 전통문화 및 생활모습, 자연 풍경 등을 주제로 열린다.

시 낭송회 초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흠뻑 전할 시낭송회가 주민들을 찾아간다. 11월 6일 오후5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박강성과 함께 하는 풀니움 시낭송회’를 연다.

11월

‘찾아가는 워크숍’

속초문화원이 12일 오후2시 설악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찾아가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문화매개자와 활동가들이 타 지역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갯마당 창단 19주년 정기연주회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19일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19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더 서클(The Circle)’을 선보인다. 매 공연에 전통악기는 물론 서양악기를 가미해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스토리가 담긴 프로그램을 추가해 다양한 볼거리를 주고 있다.

갯배공원 공연장으로

속초의 명물 ‘갯배’를 알리고, ‘갯배공원’을 상설공연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모임 갯배뮤지캠프가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고 소외지역을 순회하며 문화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라 했다.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제 접수

범죄예방위원 속초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4 번째로 마련됐다. 12월 11일 '청소년 댄싱·가요 경연제' 참가 접수가 이달 25 일까지 진행된다.

속초예술문화 심포지엄

속초예총과 속초시는 속초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19일 오후2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2011 속초예술 심포지엄-속초 예술 정책을 논하다'를 연다.

서예가 김동하

서예가 한뿔(一淵) 김동하 일연서루(서예·한문연구원) 원장이 12일부터 세 번째 개인전인 '2011 명구서예전-김동하서전'을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김동하 원장은 속초 출신으로 현천 조달순 선생으로부터 사사했다.

속초관광사진공모전

10월 17일~29일까지 접수받은 제12회 속초관광사진공모전에서 이정엽씨(서울)의 '신선도 유지'가 금상을 은상은 임흥빈씨(강원)의 '공룡능선 진달래'가 차지했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직장인들로 구성된 설악윈드오케스트라(단장 함상균)가 26일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굿보러 가자'

속초시와 한국문화보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1 무형유산 '굿보러가자' 공연이 25일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올린다. 이날 공연은 배우이자 명창 오정해씨의 사회로 진행, 전통문화 공연의 진수를 선보일 전망이다.

수강생들 총 출동

속초문화원이 속초문화원의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30일 오후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이와 함께 하는 속초문화한마당'을 연다. 속초북청사자놀이 발표회와 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 사회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가자 및 문화원 동아리 발표회 등으로 꾸며진다.

극단 굴렁쇠 무대에

굴렁쇠(대표 김귀선)가 저물어가는 한해를 정리하며 두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나무 물고기'는 12월 3일과 4일, 오후7시 '보물찾기'는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과 24일 각 오후 4시·7시 대강당에 공연한다.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속초문화원이 12월3일 오후2시 문화사랑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환경을 위한 이야기마당'을 진행한다.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설악문우회 동인지 발간

설악문우회의 동인지 '갈땀' 제41호가 발간됐다. 갈땀 제41호에는 김춘만 회장의 '쇠물안골 새들은 반사경을 쫓다'를 비롯해 박명자의 '양떼구름과 퍼즐놀이', 김종현의 '지하철을 타다' 등 24명의 시작품 200여 편이 실렸다

12월

한해 되돌아보는 문화예술행사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의 '2011년 송년예술제'가 9일부터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 9일 미술협회, 10일 문학협회, 15일 음악협회로 나누어 관객과 함께한다.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합창단이 10일 오후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여섯 번째 정기 연주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한다.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어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

속초문화회관에서 속초·고성·양양지역 초등교사 교육연구회 '연극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17일 오후 4시와 7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관람객 200만명 고지에 오른 '마당을 나온 암탉'을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속초북청사자놀이 간담회

속초북청사자놀이 발전 및 속초지역 민속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13일 오후4시 속초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기원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의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발전방안' 및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의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문화콘텐츠 전략' 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가 18일 오후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초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클래식 악기 위주로 2009년부터 놀토를 활용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강산특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강산 관련 자료를 모아 '다시 보는 금강산'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설악산과 더불어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금강산의 면목을 보여주는 전시회라 한다.

속초 어린이들이 만난 고 유정충 선장

속초지역 어린이들이 고 유정충 하나호 선장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를 기획, 17일 오후4시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첫 선을 보인다. 문화원은 유정충 선장에 이어 지역 인물을 문화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23회 속초시 문화상

교육학술부문 / 김종헌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 허우린



김종헌

교육학술부문



허우린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제23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교육학술부문에 김종헌(청대 초등학교 교감),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에 허우린(강원삼성병원 이사) 씨가 그 주인공.

김종헌씨는 '어린이 책 읽는 어른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수년간의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열악한 지역사회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속초의 교육·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우린씨는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봉사정신 고취,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의 귀감이 되며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된 올해 속초시문화상 후보에는 교육학술부문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추천됐다.

제23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식은 10월 22일 오후 8시 설악로데오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23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으로 속초시는 현재까지 모두 67명의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2011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 직 위 | 성 명 | 주 소 | 비 고 |
|-----|-----|----------------------------|------------------|
| 원장 | 노광복 | 중앙동 468-142 | |
| 부원장 | 오윤근 | 교동 656-5 13/2- | 동노인대학교장 |
| | 최현식 |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606호 |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
| 이사 | 고재양 | 교동 780-60 15/3- | 전) 교사 |
| | 곽철신 |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 영북지구 충청향우회 대표 |
| | 구영모 | 대포동 934-5 파이프랜드 | (주)파이프랜드 대표 |
| | 권순완 | 노학동 972-1 척산온천휴양촌 | 주)척산온천 휴양촌 상무 |
| | 권영석 | 조양동 부영아파트 603-1205 | 순오텐트 대표 |
| | 김계남 | 교동 780-130 15/4 |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
| | 김계양 | 대포동 470-3 | 속초대포하우스 대표 |
| | 김동익 | 중앙동 476-12 SI 속초점 | si 속초대리점 대표 |
| | 김상복 |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 속초연탄은행 대표 |
| | 문광철 |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
| | 박명기 |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 관리사무소 | 영랑호리조트 본부장 |
| | 박무웅 | 도문동 200 | 돌감자 장학회장 |
| | 박상열 |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 풍원기업(주) 대표 |
| | 박정기 | 조양동 230 연회동 |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
| | 박정은 | 금호동 484-7 동제약국 | 동제약국 |
| | 양재호 | 교동 627-32 | 전)교육행정공무원 |
| | 엄시용 | 교동 780-156 | 성우산업 대표 |
| | 윤광훈 | 교동 1021-4 디자인미디어 | 이정종합광고 대표 |
| | 윤숙자 |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 전) 설악유치원 원장 |
| | 이춘실 |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
| | 임동환 | 대포동932-8 대포농공단지내 두산유리시스템창호 |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
| | 장옥 | 교동 삼환아파트 101-301 | 속초시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
| | 주영래 | 장사동 600번지 12/4 | 속초시재향군인회 회장 |
| | 탁동식 | 교동 로악골든APT 303호 | 고성고등학교 교감 |
| | 한남호 |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
| | 함봉식 |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 주)세림 대표 |
| 감사 | 어재석 | 중앙동 468-67 | 전) 속초시의회 과장 |
| | 허우린 |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회장 |
| 사무국 | 김인섭 |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 사무국장 |
| | 이정무 |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 사업과장 |
| | 김은중 | 동명동 44번지 2/2 | 사무주임 |

돌감자 장학회

돌 위에 감자 꽃을 피우자.

돌감자 장학회의 취지를 담은 말입니다.

척박한 산비탈 돌 틈 사이에서 어렵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우는 감자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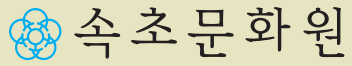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어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 되는 돌감자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끈끈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자는 게 바로 돌감자장학회의 마음입니다.

지난 36년간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 독립군의 후손인 조선족 학생들에게 감자꽃의 정신을 심어준 '돌감자 장학회'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입니다.



2011년 10월 3일 속초 청대산 정상에서 열린 돌감자장학회 기념촬영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200 전화번호 : 033-636-8087 회장 : 박무웅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451(영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